

# 2013 고유과제 정책제안보고서



## 발간사

이 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발간한 고유연구과제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제안에 초점을 둔 정책제안보고서입니다. 모든 고유연구과제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연구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체계적인 데이터 생산 및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최대한 조사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고객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발굴 단계부터 정책고객 참여를 확대하여 충분한 준비와 토론을 거쳤으며, 연구계획서 발표회와 중간보고서 발표회, 최종 보고서 정책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고객이나 정부기관의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정책제안보고서는 이러한 올해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안을 홍보하고 공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제안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들은 활동역량, 보호·복지, 통계기초 등의 주제로 분류하여 아동·청소년정책 각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본원에서 수행한 고유연구과제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본 정책제안보고서를 보신 후,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구원이 더 좋은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학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http://www.nypi.re.kr)) 좌측하단에 '연구과제 제안'을 받는 공개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가 있으시면 적극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볼 수 있으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직접 해당 연구진에게 해주시고, 보고서 구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정보자료·전산보안팀(02-2188-8852, [sooji@nypi.re.kr](mailto:sooji@nypi.re.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 임직원은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와 활발한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청소년계 여러분의 연구와 활동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한결같이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연

# 목 차

## 활동·역량 분야

-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Ⅱ • 김지경 ..... 3
- 국가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 ..... 7
-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14
-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Ⅰ • 안선영·김희진 ..... 20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Ⅰ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 ..... 29

## 보호·복지 분야

- 청소년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37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맹영임 ..... 43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50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56
-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이유진 ..... 60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양계민·김승경 ..... 70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협동) • 모상현·김형주 ..... 75
-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협동) • 김지연·황여정 ..... 82

## 통계·기초 분야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Ⅰ • 이경상 ..... 93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 김영지·김경준 ..... 96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Ⅳ • 이종원·황진구·서정아 ..... 108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Ⅲ (협동) • 오해섭 ..... 115
-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협동) • 윤철경·임지연 ..... 119

## 부 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5년간 발간물 목록 ..... 12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 162

# 활동·역량 분야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Ⅱ·김지경 | 3

국가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연구·김현철·임희진 | 7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최창욱 | 14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Ⅰ·안선영·김희진 | 20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Ⅰ·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 | 29



#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66-9(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02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19세~24세에 해당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및 의식 실태를 조사하여,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자가 절대 다수인 우리사회에서 고졸자로서 당면한 현실과 욕구의 사실(fact)을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 ❖ 주요결과

####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의 규모와 현황

- 2000년~2008년 사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임. 최근 3년간 매년 1만 5천명 정도의 고졸 비진학자가 증가함. 특히 인문계고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고졸 비진학자 청소년의 구성은 중 취업자(68.7%)>진학·취업준비(12.9%)>니트(12.3%)>구직자(6.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 비진학 사유 및 회고적 경험
  - ▶ 경제적 사유로 대학 비진학한 청소년의 경우, 현재 진학준비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았거나 진로 목표나 계획이 없었던 청소년들은 졸업 후 현재 니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

- ▶ 중·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진학준비나 니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고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이들은 취업자나 진학준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
- ▶ 고교 졸업 후 대학 중퇴 경험이 있을 경우 취업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졸업 후 일자리 경험이 많을수록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니트가 될 가능성은 낮음.

-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

-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일상생활 환경 특성에 있어 니트와 취업준비자 집단이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가장 취약함.
- ▶ 일상생활 활동 중 근로활동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다양한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처방법에 대한 인지와 노동권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음.
- ▶ 의식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보통 수준이하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특히 니트청소년의 자존감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 중 가장 낮음.
-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주요 요인은 자존감인 것으로 밝혀졌음.

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

-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

- ▶ 전반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기회 제한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일 경험에서 잦은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 하위집단별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 ▶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경우 군복무, 기초 직무역량 및 사회적응력 부족 등으로 취업 후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열악한 근로 여건과 고졸 학력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업무를 통한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 놓여 있음.
- ▶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의 경우 진로목표 설정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며, 현실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로 막연한 진로목표 설정과 준비 문제가 있음.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취약계층에서 발견됨.

- ▶ 니트청소년은 적응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일상의 실패와 부정적 경험의 누적으로 자존감은 생성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임. 소비지출을 위한 근로활동을 하기는 하나, 필요 소득만을 위한 짧은 근로와 니트 상태가 반복됨.

## 정책제안 1

###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 ❖ 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

- 첫째, 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
- 둘째,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
- 셋째, 하위집단별 맞춤형 정책(subgroup-specific policy)

#### ❖ 기대 효과

- 기존 정책에서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정책대상화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기본 틀이 됨.

## 정책제안 2

### 기본 정책 추진 과제

#### ❖ 기본 과제

- 첫째,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개발 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둘째, 현행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정책사업 전달체계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등의 추진체계 정비
- 셋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제공(제8조의 3) 관련 기관에 청소년기관·단체를 포함하고,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9조)에 반영
- 넷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구성에 청소년개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부서와 청소년기관·단체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 다섯째,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대상을 청소년기본법 기준으로 24세까지 확대하고 현행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보호정책 추진 체계를 사업장 대응 감독 및 규제체계와 청소년 대응 교육·상담 및 지원체제로 이원화하여 실효성을 높임.
- 여섯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종합정보서비스센터(가칭 Youth Support Station) 운영
- 일곱째,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 취업-전업(轉業 혹은 재취업)-창업] 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 기대 효과

- 고졸 비진학 청소년 관련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반영한 제도운영으로 정책 효과 증대
- 현재 운영 및 실시되고 있는 제도의 보완을 통해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 지원의 폭 확대

**정책제안 3**

하위집단 맞춤형 추진 과제

❖ 하위집단 세부 추진과제

- 첫째,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과제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욕구 반영 및 모니터링
- 둘째, 직업훈련 소평 예방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통합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 셋째, NPO 및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니트청소년 자립지원 센터 운영

❖ 기대 효과

- 취약계층에게서 나타나는 지원서비스 지원의 중복 수혜를 예방
- 니트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 방식으로 단계적 자립 지원 방안 마련

#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67-6(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03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 정책수요자인 청소년, 학부모를 비롯한 청소년지도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요구파악과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의 정책평가를 실시함.
-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 주요결과

- 1) 청소년활동개념과 청소년사업(youth work) 개념과의 관계
  - 청소년활동개념은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이라는 특수한 개념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해되기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청소년활동 개념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하위개념 또는 수단적인 개념으로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다른 하위영역인 청소년보호나 복지 또는 교육 등의 영역과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도구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함.
- 2) 청소년 체험활동 효과 관련 문헌의 메타분석 결과
  - OECD의 핵심역량지표와 국내에서 개발된 역량지표를 블룸의 분류체계(앤더슨과 크래쓰홀이 재구성한 신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면, 지적인 도구활용능력, 사고력, 창의력은 인지적인

영역에, 심층역량(동기, 자아정체성 등),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은 정의적인 영역에, 신체적인 역량은 심체적인 영역에 재배치 될 수 있음.

- 체험활동의 내용에 따라 ‘교과통합 체험활동’,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전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문화활동’, ‘통합체험활동’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체험활동 효과와 관련된 문헌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각각의 체험활동은 불륨의 분류체계로 재분류한 역량지표 중 특정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인지적, 정의적, 심체적으로 고른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체험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었음. 단, 긍정적인 효과는 투입변인에 따라 다양한 외재변수(주로 자기주도적인 참여 등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3) 외국의 청소년 체험활동 사례조사 결과

- 주요선진국들은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많은 선진국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들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진로체험활동도 크게 강조되고 있음.

### 4) 청소년 체험활동 실태조사 및 학부모 요구조사 결과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높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방식별로는 청소년단체활동 또는 개인참여 방식으로 참여할 때 대부분의 활동영역에서 참여율이 높은 편이며, 청소년단체, 개인참여 등 자발적 참여방식이 정의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체험활동의 폭이 넓을수록, 강도가 강할수록 체험활동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험활동의 폭보다는 강도가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보다 강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부모는 자녀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보다 전문적인 활동지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그만큼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부모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

#### 5)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 16개 시도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전반적으로 시도 고유의 추진계획과 정책추진이 미흡하며, 사업간 연계성 없이 지역의 공공이나 민간기관들에 의해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들의 청소년정책 이해도 수준이 낮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지역 청소년활동정책의 구심점이 부재함.
-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의 경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국립시설간의 관계 정립과 각 지역에서의 국립시설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며, 시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립주체 다양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센터 간의 수직적 전달체계 기능이 미흡하고, 시도와 시군구 간의 연계 또한 미흡함. 또한 시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업무가 청소년자원봉사지원업무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임사업, 시도의 정책사업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고유업무 정체성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상담복지업무나 기타 교육관련 업무와의 연계성이 미흡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설립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한 시설확충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며, 대규모 시설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역에서의 거점 역할이 미흡하고,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과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 등 고질적인 문제해결,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보조금지급 등의 지원책 마련 노력 부족으로 수익사업에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청소년지도인력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낮은 임금수준 등 고질적인 문제가 고질화되면서 특히 지방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인력 수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임금표준안 조차 없고, 직무표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설장 자격요건과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전반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청소년단체 이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활동사업과 지역사회타기관 사업간의 차별성이 약해지고 있으며, 사기업이나 사교육시장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사업의 차별성이 더욱 약화되고 있음.
-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예산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전 부처 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전부처 사업의 약 7% 이내), 청소년활동정책 주무부처의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는 정책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청소년 활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각 부처의 관련 사업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전략이 모호함.

## 정책제안 1

###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 필요

#### ❖ 제안 내용

- 첫째, 향후 청소년활동정책은 정책사업이나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거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점점 지자체나 교육청으로 청소년활동관련 정책들이 이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둘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정책을 활성화해야 함.
- 셋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의 청소년사업 또는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거나 리드해 갈 수 있는 조직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구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 ❖ 기대 효과

- 청소년활동정책을 지역연계 중심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달리 청소년기관의 지역에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
- 적은 인프라 상황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성을 찾아 갈 수 있음.

## 정책제안 2

###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비전 및 목표 설정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활동개념을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규정해야 함.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을 문화예술활동, 여가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련활동 등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타 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수련’을 삭제하고, 청소년활동 개념을

보다 보편적인 용어로 규정해야 함.

- 둘째, 아울러 청소년활동개념과 청소년역량 개념 간의 관계를 법규상에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역량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2항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의에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를 ‘청소년의 역량을 계발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다’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청소년 보호·복지 영역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적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 넷째,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전문인력, 청소년활동프로그램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별로도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 기대 효과

-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정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정책이 고립된 정책이 아니라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

### 정책제안 3

#### 네트워크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정비

#### ❖ 제안 내용

- 첫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중앙협의체 기구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그리고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등의 청소년현장 조직을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함.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시스템도 마련해야 함.
- 둘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에서의 허브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수행 비율을 낮추고 허브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함.

#### ❖ 기대 효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정점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정책전달체계가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추적

인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정책 전반적인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됨.

-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활동 관련 인프라 종사자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정책제안 4

##### 청소년지도인력양성과정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실습기관을 청소년기관에 한정짓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이나 학교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지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과정과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보다 전문화시켜야 함.

###### ❖ 기대 효과

-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의 핵심인 전문인력의 양성과정강화를 통하여 청소년정책 사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음.

#### 정책제안 5

#####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통계체계의 수립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학교 내 체험활동, 학교 밖 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주말체험활동, 직업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청소년활동시설 및 단체, 협의회 등에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행정통계가 수집·정리되어야 하며, 지자체별로 백서와 같은 형태로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 기대 효과

- 청소년활동정책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수립·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므로써 청소년

활동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정책제안 6

### 청소년참여를 핵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 ❖ 제안 내용

- 첫째, 모든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들, 즉, 교류활동,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공모사업,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사업전반에 걸쳐 반드시 '참여' 또는 '자기주도성'이 기본원리로 강조되어 타영역에서의 정책을 선도해야 함.
- 둘째, 기존의 청소년참여기구들은 다양한 자기주도적 참여활동의 수렴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 기대 효과

- 각 분야에서의 유사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활동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716-1(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09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며, 일반청소년,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대상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 주요결과

- 1)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
  -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유, 영향력을 통한 변화 도모 등의 개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 분석 결과,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참여기구들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 미비, 대표성 문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 청소년들의 의견·자문내용의 낮은 반영률, 안정적인 운영전략 부재, 안정적인 추진기구의 미비, 적은 예산,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2)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과 사례의 시사점

-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청소년참여를 장려함.
- UN경제사회부 사회정책·개발국(청소년과), 유럽 청소년포럼 및 청소년의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축제의 장으로서 특정 이슈에 대해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 전문성이 있는 선배들을 발굴하여 멘토로 활용, 고위 정치 및 행정지도자들과의 소통기회 제공,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 참여 청소년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탐구, 분야별 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논의와 참여 등의 시사점을 이끌어 냄.

## 3) 일반청소년이 생각하는 청소년참여와 청소년참여기구

- 청소년 참여활동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저해요인을 파악하며,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 청소년 참여활동 저해요인,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요인 등에 대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경험,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이 대체로 낮음. 정책 참여활동과 정치적 참여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청소년들은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활동을 더욱 선호함.
-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여 지원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청소년 참여활동 후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참여활동 이후 자신에게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응답함.
- 참여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시간 부족,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에 있어 성인이 의사결정을 주로 하고 청소년들이 따라가는 형태 또는 성인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함.
-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하며,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4)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참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계, 현장전문가 및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의의이며,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해도 차이, 가정, 학교, 사회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참여기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동아리로 인식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로 인식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에서는 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부, 기관, 시설의 인식부족, 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타 부처(교육부 등)와 연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함.
- 청소년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성인과의 파트너십이 부족,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제선정과 논의 과정이 부족, 학업 병행으로 인해 참여활동의 어려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 측면에 있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을 문제로 인식
- 청소년특별회의는 다소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벤트성 행사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는 청소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점,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실제적인 시설운영참여 권한보장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청소년특별회의의 발전방향으로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범정부적 성격에 맞게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의무화가 필요하고,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기회 확보 및 정책반영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훈련확대가 중요하다고 봄.
- 종합적으로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가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5)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홍보 및 게시판 공고 등의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참석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과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참여기구 참여기간은 평균 16.33개월, 1년간 평균 13회 정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1회 평균 4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함. 주로 하는 활동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반영 활동과 청소년행사 기획 및 운영활동 등임.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행정기관과 부모의 지원은 보통 수준이며,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는 만족함.
-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동 후 사회를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공동체의식이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 공부시간의 부족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를 보임.
-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시간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참여기구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있음.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측면에서는 체계화된 평가체계 및 장기적 로드맵 부족, 참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도자, 예산 등의 시스템부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한계인 것으로 인식함.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청소년들은 학업 병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홍보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참여기구에 있어서는 역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체계 및 제도를 정비하며,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지지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청소년참여기구활동의 효과를 리더십수준으로 검증한 결과 상대적으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많이 한 청소년들과 높은 성취기대수준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리더십능력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정책제안 1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 ❖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
- ❖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 ❖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정책기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 ❖ 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의 실질적 정책반영도 제고

- ❖ 청소년참여기구 내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 정책제안 2

###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
- 둘째, 청소년참여기구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 셋째, 청소년참여 및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강화
- 넷째, 가정·학교·지역 사회와 연계 강화
- 다섯째, 국제기구 등 외국 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 강화

#### ❖ 기대 효과

-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권한 확대
- 지역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협력 증대

## 정책제안 3

###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의 역량 강화
-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의 역량 강화
- 셋째,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조직 강화
- 넷째,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조직 결성 및 연계강화
- 다섯째,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 기대 효과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청소년참여기구 내실화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조직의 내실화

## 정책제안 4

###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
-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제도 정비
- 셋째,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강화
- 넷째,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 다섯째, 청소년참여 효과 검증 및 평가체계 확립

#### ❖ 기대 효과

- 청소년참여기구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한 운영 효율화
-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효과 검증을 통한 정책적 지원근거 마련

#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72-0(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06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체험은 지식위주의 평면적이고 소극적인 진로교육의 대안으로 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포함되었고, 신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의 직업체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을 보임.
- 우리사회의 청소년 근로환경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적, 질적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입안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 주요결과

#### 1) 진로체험 경험내용

-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로 시청각 자료나(66.9%), 직업인의 직업관련 강연(59.8%)을 통해 진로체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진로체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진로체험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특히 ‘특정직업인과의 만남/인터뷰’,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진공체험’, ‘직업모의체험’ 을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남.

## 2)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태도

- 조사대상 청소년의 54%가 자신들이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고, ‘매번 사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음.
- 최근 1년간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스스로 원해서’ 참여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2.8%정도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청소년의 약 57%로 나타남.
-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고 학업성적이 높은 편이며, 가정의 사회경제적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가 높았음.

## 3) 관심 있는 진로와 진로체험의 관련성 및 도움 정도

- 최근 1년간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관심이 있는 진로분야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51.5%)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음.
-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진로체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73.2%), ‘진로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정보 습득’(70%), ‘학교 공부가 장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해’(68%)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4) 향후 진로체험 참여의사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 향후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직업관련 강연뿐 아니라 직업 모의체험이나 직업현장, 학교견학 및 전공체험 등 비교적 직접적인 방식의 진로체험에 참여의사가 더 높았음.
- 진로체험에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향후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음.
- 가장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난 진로체험 유형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 또는 전공체험’으로 나타남.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는 ‘관심 있는 분야 직업인과의

만남 기회 확대'(35.5%)였고, 2순위는 '직업현장에서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25.1%)로 나타남.

#### 5)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수준

-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연소자 근로 보호 관련 노동관계 법령을 17항목으로 구성하여 인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한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아르바이트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와 '2013년도 최저임금' 두 항목에 그쳤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17항목 중 5항목을 차지하는 등 청소년들의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확연하게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조차도 기본적인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할 경우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임.

#### 6)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경로

- 청소년들이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를 알게 되는 주된 경로는 TV와 인터넷으로 나타남.
- 학교교육을 통해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를 알게 된 비율은 제시된 인지 경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했음.

#### 7)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중학교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10.7%이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3분의 1이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고등학교 계열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인 50.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반계고 22.8%, 특목고/자율고의 경우 14.5%로 특성화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임.
- 학업성적 수준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낮은 편'(22.3%)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높은 편'(12.0%)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남.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뚜렷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하는 경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21.1%), '부모님의 반대'(15.7%)이며,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13.4%를 차지함.
-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는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교육포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를 청소년기에 당연히 경험해야하는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와 학업은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8) 청소년 근로보호 수준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20.8%,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비율은 각각 32.1%, 19.2%로 나타남. 2011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비율이 더욱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한번 이상 부당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19.2%로 나타남. 아르바이트 중 부당경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맡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6.8%로 가장 높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5.6%,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4.2%,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2.6%,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1.8%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중 부당처우를 경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질문한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33.2%)와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24.3%)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8%,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2%, '상당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0.7%에 그쳤으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9.8%에 달해,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재해를 경험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뜨거운 것에 데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는데, '네 번 이상 데인 적이 있다'는 응답도 6.8%에 달했음.
-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4.3%로 나타나서 재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발생 비율을 나타냈고,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4%,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9.6%, '뼈가 부러지거나 뺨 적이 있다' 4.9%,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3.4% 등으로 나타남.

## 정책제안 1

### 현장중심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 제안 내용

- 첫째, 진로체험 기회 제공 기업 확대를 위해 청소년 친화적 기업 인증시스템이나 특별 보조금 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 둘째,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직접 체험 기회 확대

#### ❖ 기대 효과

- 진로체험 기회제공과 관련한 기업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 확대
- 직접적인 체험 기회 증대를 통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진로탐색 기대

## 정책제안 2

###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

#### ❖ 제안 내용

- 첫째, 지역규모, 교급 및 고교 계열,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을 위한 욕구파악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 제공
- 둘째, 취약계층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을 고려한 심리정서적 서비스 제공 및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의 멘토링과 상담 강화

#### ❖ 기대 효과

-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욕구 충족
-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존감 및 자아효능감 증대로 효과적인 진로발달 기대

## 정책제안 3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기록·관리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체계적인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척도 및 지수개발을 포함한 체계적인 검증체계 마련
- 둘째,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에듀팍 기록·관리 강화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노력 유도

#### ❖ 기대 효과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평가 및 검증체계 마련으로 효과성 제고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기록·관리 강화로 이후 효율적인 진로관련 포트폴리오 작성 및 활용성 증대

## 정책제안 4

###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활용

#### ❖ 제안 내용

- 첫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국 확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 둘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선발 및 양성
- 셋째, 청소년과의 일대일 상담과 멘토링을 위한 전문직업인 활용확대

#### ❖ 기대 효과

-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증대 및 효과적 활용으로 청소년의 체계적인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정책제안 5

### 청소년 고용사업장 감독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근로감독 전 사전 고지하도록 한 현행 근로감독직무규정을 폐지하고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법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셋째, 청소년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청소년 근로보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시 기존의 서류 조사 중심에서 벗어나 근로 청소년과의 면접조사가 강화되어야 함.
-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사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고용사업장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 ❖ 기대 효과

- 점검 및 처벌 강화를 통한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법 준수 유도
- 근로감독관 수 확충을 통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정책제안 6

### 관련 노동관계법 교육과 홍보 내실화

#### ❖ 제안 내용

- 첫째, 인터넷 홍보나 인쇄홍보물 제작·배포와 더불어 SNS 등 청소년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 둘째, 법령 중심의 홍보를 벗어나 구체적인 권리 구제방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정부가 직접 위촉한 한정된 인원을 중심으로 홍보·캠페인에 주력하기보다는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2년 대책에 포함된 ‘민관합동 청소년근로보호 서포터즈’가 내실있게 구성·운영된다면 정부 홍보의 빈틈을 메울 수 있을 것임.
- 넷째, 학교 교육과정 내 노동관계법 교육 내용 강화

#### ❖ 기대 효과

-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법 및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제고
- 부당 대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역량 등 근로 청소년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 개발

## 정책제안 7

### 신고·구제체계 내실화와 피해구제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고·구제체계를 보완해야 함.
- 둘째, 학교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 기대 효과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경험하는 부당 대우를 큰 어려움 없이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고·구제절차 운용의 실효성 제고

## 정책제안 8

지방자치단체 지원망과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 ❖ 제안 내용

- 첫째, 일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밀착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 둘째,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공조, 예산 확보와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 ❖ 기대 효과

-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청소년 근로보호 개선책을 통한 밀착형 지원 제공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노력 가시화

## 정책제안 9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청소년근로자 안전 강화 방안

### ❖ 제안 내용

- 첫째, 안전·보건에 취약한 업종과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점검표를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 위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함.
- 둘째, 산재에 대해 청소년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이 사건을 대행해주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 기대 효과

- 고용주의 인식 개선을 통한 청소년의 산재 예방 효과 제고
-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입증하는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응 포기 방지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722-2(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1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정책 마련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들 특히 지역사회와 환경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본 지표를 측정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청소년 삶의 질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구축을 목표로 10년간의 연속과제로 추진될 예정임.

### ❖ 주요결과

#### 1) 청소년, 부모, 교사의 행복감 및 I 수준 지표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중 I 수준 지표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 점수는 교사가 가장 높고, 청소년, 부모 순인 것으로 나타남. 즉, 교사 집단이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삶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이나 직업 계획이 뚜렷한 경향을 보임.

## 2) 청소년, 교사, 부모, 공무원 인구학적 특성별 II 수준 지표 평가 결과

- 청소년, 교사, 부모, 공무원의 II 수준의 7개 영역 평가 결과 비교 : 청소년, 부모, 교사, 공무원이 각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은 다름.
-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웰빙 영역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함. 부모의 경우는 청소년 주변환경의 안전/보호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교육 환경은 낮게 평가함.
- 교사의 경우는 학교의 경제적 웰빙 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한 반면, 놀이 및 여가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함.
-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한 반면, 다른 집단과 달리 지역사회의 안전/보호 수준은 부정적으로 평가함.

## 3) 시도별 청소년의 평가 결과 비교(주관적 지표만 분석)

- 안전·보호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결과를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대구, 인천, 충남, 전북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울산과 경북 지역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활환경의 안전성이나 청소년 보호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함. 구체적인 항목별 응답에는 편차가 있었음.
- 관계 영역의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시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부산, 강원, 충남, 제주, 전남, 경남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관계 영역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 반면, 울산과 광주, 경기 지역 청소년들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 지역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이었음.
- 건강·보건 영역에 대해서는 충남과 전북, 부산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강원과 울산, 경기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남.
- 교육영역에 대해 만족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부산과 인천, 대전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고, 울산과 대구, 광주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낮았음.
- 놀이 및 여가 영역에 대해서는 부산, 경남과 인천 지역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림. 반면, 전북, 충북, 울산 지역의 청소년들은 가장 적었음.
- 참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과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음. 반면, 울산과 경북, 대전 지역의 청소년들은 참여영역 비율이 가장 낮았음.
- 경제적 웰빙 영역에 대해서는 경남과 제주, 광주 지역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 가장 많았음. 반면, 충북과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음.
- 주관적 안녕감 점수는 제주와 부산 지역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울산과 전북, 전남 지역 청소년들에게서는 가장 낮았음.
- 삶의 만족도 점수에서도 부산과 인천,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반면, 울산과 전북, 경기 지역 청소년들은 가장 낮았음.

#### 4)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최종가중치 산출결과

- 주관적 지표 및 객관적 지표, 즉 전체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 부산이 최고점, 울산이 최저점을 받았으며, 인천, 제주, 서울이 각각 2, 3, 4위로 나타남.

#### 5) 통계적 설명력 분석에 기초한 최종핵심지표 산출

- 지역사회 환경 지표만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독립적인 설명력이 유의한 지표항목을 통계적으로 산출한 결과 4개 영역에서 모두 12개 지표항목이 선정되었음.
- 관계영역에서는 ‘부모님과 관계 만족도’, ‘동네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지의 여부’, ‘지역사회 성인들이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로 선정되었음.
- 건강/보건 영역에서는 ‘거주 가정의 화장실 청결수준’, ‘학교 식수대에 대한 만족’, ‘학교화장실 위생 만족도’가 선정되었음.
- 안전/보호 영역에서는 ‘가구내 안전사고로부터의 안전성’, ‘혼자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선정되었음.
- 참여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 ‘학교에서 아동권리의 교육 여부’, ‘지역사회 개선활동 참여여부’, ‘교내 매체를 통한 개인 의견표현가능성’이 선정되었음.

#### 6) 16개 시도 청소년정책시행계획 분석결과

- 시·도별 청소년정책의 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간에 상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소년 인구수도 많고, 청소년 1인당 예산액도 많으며, 청소년수련관 확보율은 높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율과 직원 1인당 담당 청소년 수는 중간수준임.
- 광역시의 경우 청소년 인구수는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순이지만, 청소년1인당 예산액은 울산, 부산, 인천, 광주, 대구의 순. 수련관확보율은 광주와 대전이 좋은 편이고,

부산과 울산이 미흡한 편이며, 상담복지센터 설치율은 인천, 광주, 울산이 중간정도이고, 부산, 대구, 대전이 낮은 편임.

- 직원 1인당 담당 청소년 수는 인천과 대구가 좋은 편이고,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이 중간 정도였음. 도의 경우에도 지표 간에 일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 정책제안 1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다양화

#### ❖ 제안 내용

-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산출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의 핵심지표 중 하나가 '학교에서 아동인권 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의 여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기대 효과

- 범정부적 접근으로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의 효과를 볼수 있음. 특히 자치단체의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를 지향하는 것은 고무적임.

## 정책제안 2

###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강화

#### ❖ 제안 내용

-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운영 필요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모든 시·군·구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할 필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좋은 편인 울산광역시조차 5개 구에 청소년수련관이 1개소에 불과함.

#### ❖ 기대 효과

-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을 통해 청소년 삶의 질을 개선함.

### 정책제안 3

####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 ❖ 제안 내용

-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정부는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을 강조하지만 이를 구현시킬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국가는 청소년정책도 다른 복지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 기대 효과

- 충분한 예산배정으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음.

### 정책제안 4

#### 청소년 행복관련 정책 네트워크 체계형성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 ❖ 제안 내용

- 청소년 행복관련 정책 추진체계 강화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보다 체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것으로 시작됨. 현재 청소년정책은 복지·여성·가족정책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단 3~9명의 직원이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며, 그나마 청소년행정만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부재함. 따라서 청소년 담당 직원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전문가의 지속적 투입과 지원이 필요함.

##### ❖ 기대 효과

- 청소년 행복관련 정책 네트워크 체계형성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정책 정착 및 효율성 제고



# 보호·복지 분야



청소년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37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맹영임	4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50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56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이유진	60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양계민·김승경	70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협동) · 모상현·김형주	75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협동) · 김지연·황여정	82



# 청소년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68-3, 자체 보고서 번호 : 13-R04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실태와 예방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
  - 첫째,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살실태를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20년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OECD와 WHO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10~24세)을 전기(10~14세), 중기(15~19세), 그리고 후기(20~24세)로 구분하고 국제비교 분석을 시도
  - 둘째, 청소년 자살 원인과 관련하여 패널분석방법론을 이용해 OECD 34개 국가 자료를 대상으로 어떤 변인들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자살 생각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시도
  - 셋째, 청소년 자살예방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사업 현황과 예산, 인력과 전달체계, 지역사회 관련기관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시도하였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상담센터, 그리고 교육부의 Wee 센터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관들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초점면접(FGI) 조사를 실시해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 주요결과

### 1) 청소년 자살 실태 및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 먼저 청소년 자살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2012년 현재 전체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24세 자살사망률은 8.3명으로 나타남.
-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1990년 6.2명에서 2012년 8.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IMF 경제 위기 전후인 1996년(9.1명)과 1998년(9.5명)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기인 2007년(9.2명)이후부터 2011년(9.5명)까지 9명 이상의 자살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음.
- 2012년 현재 전기청소년(10~14세)은 1.5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기청소년(15~19세)은 8.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후기청소년(20~24세)은 14.9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별 청소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10~14세 자살사망률은 2012년 인천과 대전이 3.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5~19세 자살사망률은 제주지역이 16.2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지역이 15.5명으로 다음으로 높았고 20~24세 자살사망률은 새로 편입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제주(23.3명)와 광주(23.1명)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음.
- OECD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청소년 자살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음.

### 2)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

- 청소년 자살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자살사망률과 다른 거시지표들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음. 여기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사례(case)로 1990년부터 2010년간의 기간 동안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패널분석 중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자살사망률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해 보았음. 그 결과, 전체 자살사망률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투입된 변수의 설명력은 14.5% 수준이며, GDP 및 GDP 성장률, 출생률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자살사망률의 경우도 GDP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청소년 자살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 수준에서 자살 생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짓 분석을 시도한 결과, 청소년 자살 위험요인으로 고려한 변수들 중에서 주관적 불안 및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 자살 보호요인으로 고려한 변수들 중에서는 자아존중감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요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학교요인들 중에서는 학교급(초·중학생 대비 고등학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음.

### 3)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음. 2013년 자살예방사업 예산 규모는 994억 원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사업과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으로 3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병·의원,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과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해 청소년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32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중앙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군구 단위까지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생자살예방관리사업과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정책중점연구소 운영, Wee 프로젝트 등으로 3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스쿨, 센터, 클래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살예방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살예방종합대책의 10대 과제 중 청소년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22.6%)였음. 다음으로 중앙부처의 해결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에서 1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해결과제는 청소년 자살예방 고위기군 조기발견체계 구축으로 응답자의 23.9%가 1순위로 꼽았고 지자체도 청소년 자살예방 고위기군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지역사회 기관들은 자살 고위험군 학생 및 청소년 사례관리 강화를 1순위로 뽑았음.
- 이 조사에서 중앙부처 간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에,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에 연계·협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긍정평가(원활+매우 원활)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으로 51.4%였고 중앙부처간 연계·협력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은 긍정평가가 동일하게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 대한 초점집단 면접(FGI)을 실시한 결과, 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문제점으로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우선적

으로 언급하였고 자살 예방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들에서 어수선하게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이밖에 자살 보도가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문제와 자살도 측정검사와 같은 검사지가 정교하지 못한 점, 게이트 키퍼 양성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정책제안 1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제안 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예방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법률로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관한 규정이 계획 수립 시 협조 요청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완 필요
- 청소년 자살 예방을 비롯하여 자살 예방과 관련해 지역사회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내용이 법령에 포함
- 법령에는 중앙 및 지역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자살예방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에 지역 9개소로 자살예방사업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
- 기능 중심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지역사회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현재 시도 단위에서 센터가 구축 중인 상황에서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공적 자원부터 연계하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동시에 부처간에 연계·협력을 주관하는 기구가 중앙자살예방센터 등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협의체 역시 설치되어 중앙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자살예방사업의 전달체계가 완비될 필요가 있음.

#### ❖ 기대 효과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정책이 현장 수준까지 전달될 수 있는 통로 마련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성 제고

## 정책제안 2

### 청소년 자살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강화

#### ❖ 제안 내용

- 국가수준의 거시지표 자료와 개인수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살펴보았으나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한 지역별 자살사망률의 편차 등을 규명할 수 없음.
- 어떤 지역의 자살사망률이 높고 낮은가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자살사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특성에 관한 심층적인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자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자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로 볼 때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심리적 부검과 같은 방식을 통해 정확한 자살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위기청소년 중에서 자살 시도나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해 자살 원인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기대 효과

-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 증진

## 정책제안 3

### 청소년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개선 필요

#### ❖ 제안 내용

- 유명인의 자살 사고 보도 이후 2개월 간 평균 약 600명의 추가 자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유명 연예인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살보도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외국에서는 자살사망사건 발생 시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18조에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에 대한 규정이나 제19조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규정만을 담고 있음. 이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살사건 보도 시에 자살이라는 용어 사용 및 자살 동기나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효과 증진
-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71-3(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05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탈북청소년 수도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통일세대인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 및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의 우리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음.

### ❖ 주요결과

#### 1) 탈북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수준

-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53), 깔끔하다(3.47), 적극적이다/성실하다(3.3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35), 공평하다(3.34)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성실하다(3.36), 돈을 잘 안 쓴다(3.26), 친절하다(3.18), 적극적이다(3.15),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09), 공평하다(3.07)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 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적극적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 많다, 깔끔하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등의 항목에서는 자기인식수준이 상호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남한)청소년들이 바라보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보다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2) 일반(남한)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수준

-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3.78), 깔끔하다(3.5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7), 적극적이다(3.54), 불만이 많다/친절하다(3.27),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25)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69), 경쟁심이 많다(3.62), 적극적이다(3.58),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6), 깔끔하다(3.51)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 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돈을 잘 안 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 많다 등의 항목에서는 자기인식수준이 상호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가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보다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3)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 및 상호인식

- 탈북청소년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1 이상이(38.8%)은 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1 정도(26.9%)가 ‘잘 모르겠다’, 또 다른 1 정도(24.3%)는 ‘한국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12.4%)’,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11.9%)’, ‘북한사람(4.5%)’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탈북청소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1 정도(29.4%)는 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0%는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람으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4) 탈북청소년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인식

- 탈북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지 질문한 결과, 과반수이상(55.2%)이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 정도(38.8%)만이 ‘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N=111)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정도(42.3%)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 받는 것이 싫어서(15.3%)’, ‘말할 용기가 없어서(7.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남한)청소년들에게 탈북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과반수(50.2%)가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과반수정도(48.9%)인 것으로 나타남. 탈북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일반(남한)청소년(N=404)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옳 정도(64.1%)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23.5%)’, ‘많은 관심을 받게 되므로(5.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6.9%)의 세부응답으로는 한민족(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상처 받을 것 같아서 등으로 나타남.

#### 5)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생활주변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는지 10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학교(3.63)’를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찰(3.59)’, ‘법원(3.50)’, ‘정부(3.42)’, ‘지방자치단체(3.36)’, ‘국회(3.35)’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남한)청소년은 ‘경찰(3.61)’을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3.60)’, ‘법원(3.44)’, ‘학원(3.24)’, ‘군대(3.20)’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남.

#### 6)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차이

-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남한)청소년 2.59, 탈북청소년 3.3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두 집단 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꿈이 깃들어 있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명예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보다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직업선택 시 명예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전통문화는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등의 도덕윤리적 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7)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46.8%)’,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35.3%)’,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4.9%)’,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13.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52.5%)’,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48.6%)’,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38.8%)’,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23.5%)’,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1.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8)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인식 수준

- 통일준비 및 방법에 대한 인식차이: 탈북청소년들과 일반(남한)청소년들 모두 통일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통일에 대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더 자주 이야기 하고,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하고,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차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차이: 탈북청소년들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된다면 국민 모두 더 행복해 질 것이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정책제안 1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 ❖ 제안 내용

- 첫째, 멘토교사 사전연수 실시 및 일반청소년과의 1:1멘토링 사업 활성화
- 둘째, 전담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 셋째,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정규학교와의 연계 강화
- 넷째, 탈북청소년대상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 기대 효과

- 멘토교사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탈북청소년과 멘토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 사업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일반청소년과도 단짝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적 지지망, 그리고 인간관계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전담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멘토교사지원, 탈북청소년사례관리, 학부모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일반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대·강화할 수 있음.
- 탈북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교육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이 남한 정착단계에서 오는 소외와 갈등의 경험을 최소화하고 학교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음.
- 탈북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하고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을 다각적,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미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음.

## 정책제안 2

###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 ❖ 제안 내용

- 첫째, 탈북청소년 교육이력시스템 구축
- 둘째,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전담기관 건립 · 운영

- 셋째, 탈북청소년 이해교육 및 연수 강화
- 넷째, 탈북청소년 학부모 대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제도화
- 다섯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 기대 효과

- 탈북청소년 입국초기부터 개인별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업, 정서, 진로지도 등을 포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기반 구축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관련부처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연계성과 효율성이 낮았던 것을 관련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탈북청소년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정착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탈북청소년 관련 학교, 공공기관의 실무자,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 이해교육 및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적 측면에서의 남북한 청소년 통합 및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이 가능해 짐.
- 한국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탈북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학교체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가정에서의 준비사항, 자녀지도 지침 등에 대해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단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 마련 및 가족통합적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 탈북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배경과 특성에 맞는 보다 정교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 정책제안 3

#### 청소년활동 및 시설을 통한 탈북청소년 사회통합방안

#### ❖ 제안 내용

- 첫째,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활동 활성화
- 둘째,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시설활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기대 효과

- 국제성취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등과 연결한 활동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관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성 증진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
-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한 청소년 사회통합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같음을 찾아내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77-5(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07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현상이 어떤 문제행동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
- 이러한 저연령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 탐색을 통하여, 저연령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 개발

### ❖ 주요결과

#### 1)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실태

- 저연령화 실태
  - ▶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92.8% 증가함. 학년별로 초등생 363%, 중학생 187%, 고등학생은 184% 로 저연령층의 학교폭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 본원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을 분석한 결과 재산범죄는 14세-16세가 66.6%, 증가하였고, 과실범죄는 13세미만은 2001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14세-16세는 272% 증가, 강력범죄는 13세미만은 76%증가, 14세-16세는 500%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의 범죄동기
  - ▶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중요한 동기로는 우발적 범죄, 호기심,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비와 유흥비마련, 기타 이익을 위한 욕심으로 나타남.

- ▶ 2005년 이후 우발적 범죄나 호기심, 부주의는 약간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이익을 위한 욕심을 약 64배 증가, 유흥 1.9배, 생활비 마련 2.3배, 유흥비 1.46배로 경제적 이익범죄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2)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원인

### - 문제행동 원인

- ▶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출, 무단결석, 유해환경접촉, 자살시도, 게임중독 등

### - 저연령층과 중기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요인 비교

- ▶ 전국조사 분석결과 청소년 문제행동 영향 요인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소년의 시기 혹은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나 (-)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함.

구분	청소년전기(초등)							청소년중기(중등)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가출 경험	무단 결석	유해 장소 출입	자살 시도	게임 중독	가해	피해	가출	무단 결석	유해 장소 출입	자살 시도	게임 중독
금전지향태도											+		-	
심리적 불안감	+	+	+			+		+	+		+		+	
자아존중감		+					-							-
긍정적 부모관계			-			-				-	-			-
갈등적 부모관계			+	+*			+			+				
긍정적 친구관계										+		-	+	
갈등적 친구관계	+	+						+	+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태도											-			-
유해 환경접촉기회					+		+				+	+		+
비도덕적 행동	+			+				+		+				+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	+*	+*	+*		+*			+*	+*	+*	+*	+*	+*	+*
계	+4	+4	+3 -1	+2	+2	+1 -1	+2 -1	+4	+3	+4 -1	+4 -2	+2 -1	+3 -3	+3 -1

\*은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요인, -는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요인

- ▶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동일한 사건이나 영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며,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성장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용방법이 달라져야 함.

## 정책제안 1

### 정책추진 방향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 강화
  - ▶ 저연령층일수록 부모로부터 영향력이 매우 높음.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비행의 원인은 개인에게 애착, 신념, 헌신, 참여라는 사회적 유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어머니 애착이 중요함.
  - ▶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청소년이 부모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둘째, 청소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정책 추진
  - ▶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긴장을 촉진시키는 사항을 줄일 필요가 있음. 특히 부모와 교사로부터 청소년이 긴장을 적게 받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됨
- 셋째,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은 저연령층부터 촉진
  - ▶ 자살시도 경험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서 문제행동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예방 프로그램 실시 필요
- 넷째, 청소년이 스스로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 현재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은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이나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다섯째, 멘토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시행

- ▶ 친구나 선배, 성인이 올바르게 하는 일을 시키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멘토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정책제안 2

### 법·제도적 추진 과제

#### ❖ 제안 내용

- 첫째, 소년복지지원법 개정
  -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세부조항이 없음.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됨.
- 둘째, 초등교육법 개정
  - ▶ 교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된 경우에 한해야 하며, 긴급성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교인권·자치법」 제정 필요
  - ▶ 청소년도 학생이라는 신분이전에 인간으로서 부여되는 기본권이 있으며,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기본권을 되찾게 됨. 헌법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러 가지 권고들을 실천하는 것.
- 넷째, 국가 차원의 청소년 도덕인성 함양 체계 구축
  - ▶ 중앙 정부 내에 도덕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담당부서’의 설치,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후속세대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유, 초, 중등학교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평가할 담당부서를 적어도 국가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
  - ▶ 직전교육의 차원에서 예비교사의 도덕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교직과목 이수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현직교사교육의 강화를 위해 현장 교원 대상의 학교폭력의 위기 대응 및 관리교육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발, 제작, 보급

### 정책제안 3

#### 문제행동 예방 및 역량 함양 프로그램 구축

##### ❖ 제안 내용

-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 ▶ 첫째, 일반적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탐색해 보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방법을 고안. 둘째, 사회적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욕구충족은 인간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이해하기라는 목표 아래 나와 상대방의 바람 탐색, 나와 상대방의 욕구를 5가지 기본욕구와 연결하고, 서로 만족시킬 방법을 찾고 발표하기 등의 활동을 수행
  - ▶ 긍정적 심리조절 프로그램 운영, 부모관계 회복 프로그램,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 정책제안 4

####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 ❖ 제안 내용

- 첫째, 학교 물리적 공간개선
  - ▶ 학교시설을 방어적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 시에 복도에서도 교실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강화유리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 신규학교를 설립 시에는 건물을 一자 형태로 짓기 보다는 마주보거나, 삼각 형태 등으로 구성하여 건물 간에 상대쪽 공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실은 외부에서 감시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으로, 화장실은 앞쪽으로 배치하여 우범 장소가 되는 것을 막도록 함.
- 둘째, 지역사회 환경 공간 개선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 국가차원에서 청소년문제 및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문제나 범죄 등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해환경의 추가적인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유해업소별로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고, 가칭 '청소년유해환경감소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단위의 유해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82-9(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08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기존의 PC나 방송매체와 달리 스마트폰은 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가능한 매체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큰 매체임. 특히,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부모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스마트폰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스마트폰이 야기하는 문제는 무수히 많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크게 중독성, 파도림, 유해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파도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며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주요결과

- 1)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실태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중독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6%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했고 7.6%는 고위험군이었음. 즉 전체응답자의 35.2%가 스마트폰중독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중독이라는 놀라운 연구결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중독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임.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가정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경우가 스마트폰중독위험성이 높았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중독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즉 저소득가정자녀의 스마트폰중독률이 높게 나타남.

##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실태 조사

-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최근 3개월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함.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여러 서비스 중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따돌림 경험은 3.1%, 문자는 2.8%, 사진 1.6%, 이메일 1.3%였음. 여학생들의 경우 채팅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음. 남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을 따돌리는 사진이나 이메일을 여학생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3) 성인용 앱 다운로드 실태 조사

-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음란물, 도박 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그렇다고 답했음. 성별로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았음.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앱들을 주로 어디서 다운로드 했느냐고 질문한 결과, 구글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음.
-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마트보안관 중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었음.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차단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25.3%였고 스마트보안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2.7%에 그쳤음.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았음.

## 정책제안 1

### 스마트폰중독예방대책

#### ❖ 제안 내용

- 첫째, 스마트폰이용규칙 제정 및 실천
- 둘째, 중독방지어플의 설치
  - ※ 현재 시중에는 ‘모모’를 비롯한 스마트폰중독방지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음. ‘모모’의 경우 이용자가 특정앱을 잠그면 그 기간 동안 그 앱을 사용할 수 없고 잠금은 시간별, 요일별로도 가능함.
- 셋째,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 확대

#### ❖ 기대 효과

- 스마트폰의 과다이용제한
- 스마트폰중독위험성에 대한 환기 효과

## 정책제안 2

###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대응방안

#### ❖ 제안 내용

- 첫째, 부모 및 교사교육 강화
- 둘째, 채팅앱에 사이버불링신고장치 설치
  - ※ 이미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불링이나 자살 등의 글을 발견하면 바로 페이스북 본사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셋째, 사이버불링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넷째, 모바일가디언과 같은 사이버불링예방 어플 설치

#### ❖ 기대 효과

- 사이버불링의 개념이나 원인에 대한 공유
- 사이버불링의 경각심 고취

- 사이버불링의 사전 차단

### 정책제안 3

####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정보차단 대책

##### ❖ 제안 내용

- 첫째,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 의무화
- 둘째, 안전한 스마트폰사용을 위한 자녀지도매뉴얼 보급 및 확산
  - ※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자 2010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바 있음. 이 지침서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 사이트 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실려 있음.
  - ※ 영국의 경우도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이 자녀의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북인 'Digital Parenting'을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vodaphone, 2012). 이 가이드북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설치해야 하는 지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고 우려스러운 스마트폰 내용을 어떻게 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 리포트 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음. 즉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녀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임. 이 책자는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포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사회도 하루빨리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사용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음.

##### ❖ 기대 효과

- 성인물을 비롯한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사전 차단
- 안전한 스마트폰사용을 위한 방안 숙지

##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720-8(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10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개년에 걸쳐 기획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1차년도인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였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이러한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1차년도에 성폭력에 관해 연구한 결과, 가정폭력 및 성매매와의 중첩성 문제가 제기됨.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피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의 경계 선상에서 살아가게 됨. 따라서 성매매 대책은 이러한 성폭력 피해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의 발달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이 점점 더 용이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성매매 유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인터넷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군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재유입되는지를 파악해 그 과정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 방탕함 등으로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어 노출된 위험도에 비하여 보호대책 마련 및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당연히 받아야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로 간주해야 함. 그렇지만 성매매에 관한 피해자 관점의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았는데, 성매매를 성인지적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연령인지적인 측면은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게 됨.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인여성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가출과 성매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정책은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인프라 역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정책과 인프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조치일 뿐 사전예방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그 동안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특히 2010년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유인행위를 처벌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청의 안전드림사이트를 통한 신고프로그램도 운영해 왔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시점임.
-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성매수자의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 주요결과

### 1) 전문가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의 책임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생각은 그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첫 번째로 꼽혔음. 그 다음이 모든 국민의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교육을 위한 노력, 모든 국민의 사회환경 정비노력의 순으로 나타남.

- 성매매기관 및 청소년보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열거한 후 실효성의 측면에서 평가를 하도록 요청한 결과,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된 활동은 피해자지원 중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인데 반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활동은 성매수자 재범방지 교육, 피해자 조기발견 체계구축, 피해자 학업서비스, 피해자 직업교육 등으로 나타남.
- 성매매유입대책과 관련한 활동가들의 의견에서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났음. 우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데 현장활동가의 약 68%가 동의하고 있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아동 청소년들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출청소년들보다 훨씬 자존감이 낮고 치료도 오래 걸리며 가족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지체계가 더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출 후 생존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출을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르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성매매로 이르는 경로 및 수단을 보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종사자들이 언급한 최근 성매매의 변화된 특성을 보면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죄의식의 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가출팸, 포레포주의 등장으로 요약됨. 현장 종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성매매 경향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현상들에 대한 대책은 매우 지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최근에 오피스텔과 원룸에 가출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보증금없는 월세제도는 큰 목돈 없이, 하루하루 성매매 등을 통해 돈을 벌며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아웃리치(outreach)만이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있을만한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아웃리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동시에 사이버 아웃리치도 병행하여야 함.
- 성매수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강화와 지속적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 더 많았고, 이러한 기술적인 대처방안보다는 왜곡된 성문화 개선과 성매매도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

## 2) 면접조사

- 아동·청소년 성매매 동기는 가출로 인한 빈곤과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나타났다. 개별 심층면접 결과, 1순위가 ‘가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 2순위 ‘주변 친구들의 권유나 부탁’, 3순위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몰래 성매매’로 나타났다.
- 성매매 유입 경로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변의 친구나 선배 권유로 아는 사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소개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매매 결정이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5%(9명)가 강요와 협박에 의한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응답했음. 즉, 가출 후 또래 포주나 성인 남성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어쩔 수 없이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것임. 무엇보다도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또래 성매매 포주에 대한 처벌 및 재범 억제 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72.5%(29명)가 성매매 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주변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기에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라고 인식한 것이나 심층면접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가출 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최초 성매매 결정이 외부의 강제나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출 후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계형 성매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임. 심층면접 결과, 본 연구에서 여자 아동·청소년은 가출 후 돈을 벌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비록 스스로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인 경우가 많아 가출 후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택하게 된 성매매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성매매 이후의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28명)가 성매매 이후 신체적으로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계를 자동차 안에서 하거나 모텔에서 강제로 하게 되면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자 아동·청소년이 질염이나 성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응답자의 22.5%(9명)는 성매수 남성의 폭력 및 가학행위로 성매매 이후에도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관계 시 강제로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행위를 가하기도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하여 성매매 이후에도 협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심리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남성들이 사후에 자신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심각한 불안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모든 남성들에 대한 불신과 성인들에 혐오 등이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등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22.5%(9명)가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스스로 강한 결심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외부의 특별한 도움 없이 스스로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병이나 친구의 성병 감염을 보고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기로 결심’, ‘그냥 그만 두어야한다는 의지가 생겨 결심’, ‘성매매를 권유하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성매매를 그만 두게 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됨’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전체의 10%(4명)는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매매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응답했음.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성매매를 그만 두게 된 경우는 전체의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제안 1

###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 ❖ 제안 내용

- 첫째, 성매매 청소년의 다양화에 따라 그들의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전략도 차별화 되어야 함: 저연령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경험, 학교폭력으로서의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 둘째, 부모교육과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적극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 특히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에 기인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셋째,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이 필요함. 청소년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함.
- 넷째,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매수자와

매매자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음. 우선 시급한 것이 성매매를 위한 채팅앱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임.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도 사이버 아웃리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착취, 또는 폭력이라는 강력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도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것에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매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인식전환 노력이 매우 필요함.
- 여섯째, 성매매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매매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초기에 찾아내고 이들에게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학교내 상담사 및 복지사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함.
- 일곱째, 보증금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성매매 조직처럼 움직이는 가출팸들이 있다고 함. 이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함.
- 여덟째,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활동으로 아동·청소년의 가출을 방지하고, 가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아동·청소년에게 미리 명확히 알리는 계몽활동이 필요함. 또한 일반 성인 남성 및 청소년 또래 집단에 대한 건전한 성인식 및 성역할 교육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함.
- 아홉째, 2차 예방이란 어느 정도 성매매 위험성이 인지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을 말함. 과학적인 사전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성매매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선별해 낼 수 있다면, 제한된 범죄예방 자원을 고위험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의가 있음.
- 열째, 3차 예방은 이미 성매매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유입 방지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적·신체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음.

#### ❖ 기대 효과

- 성매매 청소년의 다양화에 맞춘 성매매 유입방지 전략의 차별화
-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가출 방지
-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매수자와 매매자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는 성매매를 위한 채팅앱에 청소년들의 접근 차단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착취, 또는 폭력이라는 인식전환
-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적·신체적·경제적 문제를 해결을 통한 재유입 방지

## 정책제안 2

###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 ❖ 제안 내용

- 첫째, 현장전문가 중 약 67.3%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매매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함. 이들 청소년들은 가족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의 악순환에 내몰리게 되기도 함. 애정결핍, 행동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고통 받으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징도 보인다고 함. 따라서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기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교육과 인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입이 좋은 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노동의 중요성, 일을 통한 자기성취의 중요성,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가치 등을 일깨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직업훈련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규정의 명확화와 실무관행상 변화가 요구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이들을 온전히 피해자로서 간주할 수가 있게 됨.
- 넷째, 거리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도 예방해야 하지만 이들이 잠재적으로 범죄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관-경찰, 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들이 지역사회의 치안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다섯째,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교육현황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형사사법기관 인지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따로 이루어져야함.
- 여섯째, 가출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활동이 필요함.

- 일곱째, 가출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피해정도, 성매매기간 등이 모두 다양하므로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학업, 취업, 약물, 임신 등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시설에서 모든 욕구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임.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일반가출 청소년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임.
- 여덟째,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통합과 지역단위의 원활한 소통과 연계가 필요함. 정책의 통합과 법의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역단위에서 사례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아홉째, 집착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 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존재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열째, 성매매를 한 대상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구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다양한 부처의 개입을 필요로 함. 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 업무는 성매매예방 및 대책의 주제 범주에서 다루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적 자원을 관장하는 타위기관에서 개입의 정도와 단계를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됨.
- 열한번째,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의 비율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성매매 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몫이지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몫일 것임. 따라서 인터넷 성매매를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열두번째, 청소년성매수 유인과 같이 최근에 법제화된 정책은 우선 순위로 통계데이터의 정리 및 구축을 통해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함.
- 열세번째,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서비스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해야 함. 성매매에 이르게 된 유입 경로가 결코 아동·청소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출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또래 포주들에 의한 폭력과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임.

### ❖ 기대 효과

-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의 악순환 방지
- 장기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교육과 인문교육이 활성화 및 직업훈련의 다변화
- 가출아동·청소년의 학업, 취업, 약물, 임신 등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시설의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운영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통합과 지역단위의 원활한 소통과 연계
- 지역사회 내 청소년서비스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 정책제안 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 ❖ 제안 내용

- 첫째, 현재 각 기관을 통해서 성매매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실직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성매매예방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음. 대표적인 성구매자인 남성에게 대한 집합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기관은 국방부임. 따라서 성구매 주요 연령이 밀집될 수 있는 ‘현역군, 예비군, 민방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찾아서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함.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성매매강요뿐만 아니라 포주, 보도방을 통한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접할 시 신고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이 비자발적임을 인지 시 가중 처벌함.
- 넷째,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에게 성매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매매예방 글을 보내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 다섯째, 심층면접 결과,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다수가 남성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매매 이후 남성이 다시 자신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렵다고 말한 아동·청소년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국방부를 통하여 성구매 주요 연령이 밀집될 수 있는 ‘현역군, 예비군, 민방위’에 대한 효과적인 성매매 예방교육
-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찾아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 및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신고 유도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연구 요약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BN : 978-89-7816-742-0(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12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파악
- 발달의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

### ❖ 주요결과

#### 1) 종단변화양상

- 대부분의 변인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임.
- 가정영역
  - 어머니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준은 3년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아버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준은 점차 증가함.
  -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의 태도는 변화가 없으나 방임의 태도는 감소하는 경향
- 학교영역
  -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증가함.
  - 학교공부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증가함.
  -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의 적응수준이 점차 증가함.

- 집단괴롭힘의 경험이 점차 감소함.
- 성취동기와 학업적 포부수준이 점차 증가함.
- 심리·사회영역
  -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신체적 만족도 등이 점차 증가함.
  - 사회적 위축의 경향성이 약간 상승함.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과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점차 증가함.
  -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증가함.
- 신체영역
  - 키와 몸무게가 전국표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임. 특히 전국표준과의 격차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 발달양상집단별 특성

-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에 따라 발달양상을 구분한 결과 3년간 일관되게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높은 고-고(HA)집단, 처음에는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낮았으나 점차 상승한 저-고(IM)집단,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높았으나 점차 낮아진 고-저(DA)집단, 그리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낮은 저-저(LA)집단 등 총 네 개의 군집이 산출됨.
- 일관되게 높은 학교생활적응수준을 보이는 고-고(HA)집단의 경우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 그 외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집단이며, 두 번째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집단은 처음에는 학교생활수준이 낮았으나 점차 상승한 저-고(IM)집단이었 고, 세 번째 적응도를 보이는 집단은 처음에는 학교생활수준이 높다가 점차 낮아진 고-저(DA)집 단,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학교생활적응수준을 보인 저-저(LA)집단의 경우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부적응적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 발달양상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배경요인
  - 가정형편과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요인
  - 부모의 양육태도, 즉, 감독과 방임의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자녀의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는 경우 학교적응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및 성취요인

- 학교 내에서의 집단괴롭힘 경험이 학교적응 수준이 점차 떨어지는 집단에서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교성적과 성취동기, 그리고 2012년도의 학업적 포부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됨.

■ 사회적 지지요인

- 가족의 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학교적응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가족의 지지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학교적응의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집단은 2012년도의 가족, 교사, 친구의 지지가 증가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4) 요구조사 결과

- 현재로써 지원을 많이 받은 집단의 적응 수준이 더 높고, 가장 발달이 열악한 집단의 경우 지원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의 효과 경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지원 정책은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은 일반 한국가정 청소년과 구분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구별의 문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집단의 다양성에 주목해야 함.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집단의 경우 학습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많고 학교성적도 좋고 성격도 밝은 등 매우 긍정적 발달상태를 보이나, 반대로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은 지원의 수준도 낮고, 부모나라 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는 등 집단별로 특성이 다름.

**정책제안 1**

분리가 아닌 통합

❖ 제안 내용

- 첫째, 다문화청소년이라는 대상중심지원에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함께 서비스중심

- 둘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낙인감 방지방안 마련

❖ 기대 효과

- 다문화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하는 차별감 감소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감소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강화를 방지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 정책제안 2

### 지원과 역량강화의 균형

❖ 제안 내용

-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기대 효과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별 강점과 취약점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역량강화 도모를 가능하게 함.
-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 역량강화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주도적이며 역량을 갖춘 다문화청소년 양성

## 정책제안 3

###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 제안 내용

- 첫째,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
- 둘째, 교사대상 다문화역량강화
- 셋째,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기관 실무자 다문화역량강화
- 넷째,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 기대 효과

-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주변의 지지기반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촉진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44-1(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16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문명의 발달과 주거 및 여가 환경의 개선은 인간의 삶을 증진하고, 각종 질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유해환경과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3년차)를 파악하고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 수준 변화의 양상과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적용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제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제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 주요결과

#### 1)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부문

-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청소년 9,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 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하위 영역별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음.
- 주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3년의 3년 간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이나 시도, 스트레스 등 부적응적 심리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음. 게임중독, 비행 등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세부요인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음. 2011년과 2012년과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소폭이지만 우울, 불안, 게임중독, 스트레스 등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평균점수는 낮아졌고,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가족관계의 질, 지역사회 지원 및 상호작용, 학교생활 등 전반적으로 적응적 심리요인의 평균점수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개인 내 적응적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지원의 경우 2011년이 가장 높았고 2012년 낮아지다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구축 연구

-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범위를 고찰하고,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함. 또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강결정요인의 범위와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를 고찰함.
- 정책과 관련된 지표의 종류, 지표의 정의, 지표의 생산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고찰하기 위해 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전달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함. 해당 분야는 임상 분야와 보건분야, 비보건분야로 크게 분류되었으며, 비보건분야에는 교육, 사회복지, 청소년활동지원과 관련된 사회정책분야 등이 포함되었음.
- 세계보건기구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생산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 즉 정신건강의 범위,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우선순위와 범위 및 관련된 지표를 고찰함.
- 정신건강 지표들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공무원,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지표의 우선순위를 산출함.
- 문헌고찰 및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간추린 주요 정신건강지표와 관련정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정책자문회의의를 거쳐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핵심지표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통계적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프로그램을 고찰함.

- 국내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 대상과 목적,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성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에 비추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국외프로그램의 경우 국내보다 정부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신과의사, 상담 및 심리치료자, 심리학자, 교육심리학자, 사회복지 전문가, 간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개입방향을 수립하고 있음을 제시함.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개발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 방안을 파악하였음. 학교교사 및 전문상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Wee 센터 및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면에서 청소년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방식 및 서비스 수준, 정신건강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의 필수 요소, 학교현장 적용 프로그램의 고려사항을 조사함.
- 선행연구 분석과 국내외 유관 프로그램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첫째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과 우울, 불안, 자살, 인터넷 중독의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시하였음. 둘째는 예방 및 치료 요소별로 정의, 발생원인, 특징 및 증상, 학교장면에서의 영향력, 개입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교사나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각 정신건강 요소별로 자신의 문제수준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도구를 제시하여 치료적 개입여부를 지원토록 하였음.

## 정책제안 1

### 예방 중심의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 ❖ 제안 내용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은 예방정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인구집단 정신질환의 위험수준에 따른 예방활동 수준을 1차 예방(증진과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 2차 예방(정신질환의 발견과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 3차 예방(치료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 유지 재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은 성장발달의 시기라는 특징으로 인해 특히, 1차 예방에 대한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아동기의 다양한 행동 문제들이 청년기의 반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여러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에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대해 조기선별부터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중심의 정신건강 증진정책의 수립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절감효과와 더불어 성인기에 이르는 건강한 발달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성인기 이후 건전한 성장의 단초를 제공함.

**정책제안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통합 수행 기전 마련

❖ 제안 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앙부처간 협의와 협조와 더불어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여하는 의료인, 교육관계자, 정신건강전문인, 지역사회대표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기구의 마련이 시급함.

❖ 기대 효과

- 부처 간 경쟁적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중복과 부처 사업간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 및 기관 간의 업무조율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헤드쿼터의 구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조직화(통합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정책제안 3**

학교 기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확대

❖ 제안 내용

-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아동·청소년의 특성 상,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의 분명한 역할 정립 및 명시화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학교·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정신보건센터·병원), 그리고 학교기반정신건강 서비스에 관여하는 전문 스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중요함. 또한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대상의 홍보 및 교육과 상담 제공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신뢰를 형성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 가정으로 파급될 수 있는 실제적 정신건강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정책제안 4**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제안 내용

- 학교 장면에서 고위험군 청소년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로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하는 개인 및 집단상담 등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단위학교별로 대부분 현재 계약직인 전문상담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과 더불어 학교 내 상담 환경 조성 그리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 인력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입과 책임감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교육 및 연수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자원들의 연계협력체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양성 관리를 통한 실제 사업을 수행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음

## 정책제안 5

### 사후관리체계 강화

#### ❖ 제안 내용

-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임. 문제를 발견만 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개입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됨.

####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의 변화의 과정과 양상을 추적·관리할 수 있으며,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발달시기 별 효율적인 개입과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정책제안 6

###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계획 수립 및 지표 생성

#### ❖ 제안 내용

- 국가단위 정신건강 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신건강 사업의 전문화와 다기능화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수요에 대한 대응성과 종합성이 강화될 수 있음. 이를 위해 계획의 방향, 목표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여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 기대 효과

- 정신건강의 영역은 단일 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함께 정신건강 계획수립에 동참하고 해당 지표별 목표 수준에 대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수행해 낼 때, 실현가능한 목표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정책제안 7

### 평가제도 도입

#### ❖ 제안 내용

-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상황 및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 대상 측면, 서비스 내용 측면, 그리고 주된 정신건강 문제 영역 등에서의 목표 달성 정도 파악, 사업과정에 대한 적절성, 사업의 효율적 관리, 사업의 취약점 분석, 투입한 노력에 대한 평가제도의 구축이 요청함.

#### ❖ 기대 효과

- 평가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의 성과수준 및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정신건강 사업의 정체성과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업무 분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정책제안 8

### 개인적 요소이외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돕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 필요

#### ❖ 제안 내용

- 학교장면에서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내적인 문제와 환경적 문제로 구분됨. 개인 내적인 문제(무력감, 스트레스, 우울, 집단따돌림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자살과 자해, 분노조절) 이외에 환경적 문제인 가정불화 및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편모, 편부, 조손가정의 청소년, 가정폭력과 부모의 알코올 관련 문제, 가정 내 성폭력 등 이 두 가지 문제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줌.

#### ❖ 기대 효과

-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 개인 내적인 요인 이외에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및 가정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통해 실제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925-7(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17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2012년부터 2개년 연구로 추진됨.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이슈를 제기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경로 및 제도적 여건을 점검함.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에는 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 연구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비한 우리사회의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음.

#### ❖ 주요결과

- 1)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분석
  - 청소년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임의규정 개선, 「학교보건법」의 실효성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 조치 마련,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입양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의 개선이 요구됨.

## 2) 청소년 한부모 생활실태 및 정책여건 분석

- 조사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24세 이하 청소년이며 표본 크기는 378명임. 본 표본에서 정부지원 및 부모와 가족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응답은 10명 가운데 7명에 달하는 반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함.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라는 응답은 40.7%에 달하였고 현재 학업을 지속한다는 응답은 22.0%에 그침. 임신, 출산 이후 정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전체의 3/4에 달하였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준비 수준 및 자립성공에는 심리·정서적 요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를 입양 보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입양을 고려중이라는 응답은 28%에 달하였고, 이들 중 대다수가 후유증을 호소함.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 각각의 인지율, 수혜율,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양육지원제도, 출산지원제도의 인지율, 수혜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수혜율은 30%를 밑돌았고 위기청소년 지원제도는 인지율, 수혜율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주기별 지원제도의 운영 뿐 아니라 현행 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3)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조사 결과

- 확률표집에 의해 중·고등학생 6,543명,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5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인식을 조사함. 조사 대상 청소년의 6.1%는 '임신, 출산으로 고민하는 친구를 접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함.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청소년 '임신'보다 출산 후 양육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청소년 한부모는 책임감이 있다'는 의견도 청소년과 학부모 각각 64.7%, 62.5%에 달하였음.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청소년 10명 8명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함. 특히 '학생 임신부가 내가(혹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청소년(60.6%)이 학부모(45.9%)보다 높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우리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부모(70.6%)가 청소년(65.2%)보다 높았음.

## 4)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세부보고서)

- 조사 대상 중 입양 경험이 있거나 고려중이라는 응답은 106명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60.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명 중 8명이 입양 혹은 입양 결정 이후 후유증이 있다고

응답함. 입양숙려제도와 입양허가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44.2%, 27%였고 입양숙려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n=167) 이 제도가 양육 결정에 도움이 된다(44.9%)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30.5%)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입양숙려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n=102명) 숙려 기간이 길다(37.2%)는 응답이 짧다(33.6%), 적당하다(29.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숙려기간 중 출생아 보호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5)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세부보고서)

- 청소년 한부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입소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82.8%)과 지역 내 구청·주민센터(65.9%)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미혼모부자거점기관(41.3%), 보건소(15.9%), 청소년상담복지기관(13%) 이용 경험은 저조함. 이는 그간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 전달체계가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 공공복지를 포함한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 설치, 주민센터 및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의 인력 및 기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임이 확인됨.

## 정책제안 1

###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취약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고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역시 연계를 포함한 거점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능을 보강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 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함.
- 둘째, 빈곤과 가구형태(한부모)까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기관을 확충하여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함.
- 셋째, 모바일 미디어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하고 문자, 채팅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 방법을 다양화하여 대상자 조기 발굴, 원스톱 지원, 초기상담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함.

#### ❖ 기대 효과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원인이 계층의 문제임이 일부 확인된 만큼 취약가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미래사회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함.

## 정책제안 2

### 위기가족 지원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약 8명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양육비 이행기관을 설치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제수단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함.
- 둘째, 본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상대 남성 75%가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나타나 사실상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임.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한적 선지급 제도'를 신설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는 상대 남성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 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기대 효과

-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여 청소년 한부모와 자녀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OECD국가 중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등 17개국이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기 도입·운영중임.

## 정책제안 3

###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입양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둘째, 현행 CYS-Net 필수 연계기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셋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면 동거가족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들의 취약성으로 인해 일선 기관에서 묵인하고 지원하는 실정임.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동거중인 경우라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등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를 통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됨.

- 넷째, 낙태의 범죄화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임신부임.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종교단체 중심의 낙태 예방 노력에서 벗어나 정책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
- 다섯째,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과 관련하여 성평등 피임교육과 피임접근성 강화, 사전·사후 피임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요구되며 청소년 낙태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등에 포함된 청소년 피임실천율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여야 함.

#### ❖ 기대 효과

- 취약·위기 청소년과 가족지원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와 시너지가 기대됨.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원가정 보호’에 기여하며 청소년 한부모와 자녀에 대한 투자는 기대편익이 높아 추후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함.

### 정책제안 4

####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임신, 출산과 같은 사안에서 초기 상담과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청소년 전화 헬프콜 1388,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시설 등으로 상담문의가 분산되어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한부모가족 전담 전화상담을 설치하고 상담인력 중 미혼모 전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거점기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대상자 누락, 분절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거주지 변동이 잦은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녀의 성장 등 생활주기에 따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대상자 입소 시 퇴소

이후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시설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 셋째, 시설 입소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2명만이 퇴소 후 원 가정 복귀 계획을 가지고 있어 퇴소 이후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함. 2013년 6월 현재 한부모가구에 공급된 임대주택 15,836호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공급된 주택은 28호에 불과함. 보금자리 매입임대주택 원룸 공급 시 대학생에 준하여 청소년 한부모에 우선 공급, 3~4세대 청소년 한부모가구 대상 공동주거시설 확대 등이 요구됨. 장기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확보,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추진 필요
- 넷째, '아동이 아동을 양육하는' 18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전에 「아동복지법」에 준한 보호가 필요함. 청소년 한부모 역시 보호 대상이므로 자녀와 함께 가정위탁할 경우 '원가정 보호'와 자립역량 제고에 기여함.

#### ❖ 기대 효과

- 주거취약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기여함.
- 국정과제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강화, 건강한 가정만들기와 관련한 추진과제의 정책효과 제고

### 정책제안 5

#### 입양 미혼모 인권 보호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의 임신, 출산은 반복되는 사안이며 입양 후 대다수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입양에 있어 친생모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 2015년 이후 입양기관의 미혼모시설 운영이 금지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입양인 사후관리 업무와 입양 미혼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연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대안이 강구되어야 함.
- 둘째, 입양숙려기간 중 아동 양육이 불가한 경우 위탁가정 등에 대리보호하도록 하고 대리보호 동의를 입양동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입양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됨. 단, 보호동의를 경우에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대상으로 산후조리 및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와의 만남 등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 시 보호동의를 입양동의를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베이비 박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요보호아동 및 미혼모 보호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야 함. 베이비 박스는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으나 현행 운영 방식은 관리감독의 부재로 아동 인권과 관련한 부차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넷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일부사항, 전부사항이라는 용어를 일반사항, 기초사항으로 개선하고, 기록의 열람 범위와 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친양자관계등록부 상의 친생모에 대한 정보 역시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되 본인(친생모)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입양인이 친모의 인적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 기대 효과

-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사회적 지원 및 아동과 미혼모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
-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 개선

### 정책제안 6

####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양육과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3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돌봄 지원을 허용하고, 시간제한 등 이용원칙에 예외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이 요구됨. 또한 영아종일제 지원, 시간제 이용대상 확대를 위해 「아동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야 함.
- 둘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운영을 통해 자립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 마련을 지원함. 기초생활보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한부모가 생계비 및 근로소득 일부를 저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24세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이후 현행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과 연계 운영하여 성인기 이후 자립을 지원함.
- 셋째,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족이 이들을 부양할 경우에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야 함.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녀가 만 3세에 달할 때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교육 및 자활급여를 조건부로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지원함. 프랑스는 2009년부터 활동적 연대수당을 통해 원가정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근로 및 취업 촉진을 유도함.

- 넷째,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함.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 위탁가정에 월 12만원, 입양가정에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됨을 감안할 때 원가정 보호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음.

#### ❖ 기대 효과

-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우리사회의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
-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육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 정책제안 7

####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출석 대체를 인정하여야 함. 재학 중인 청소년이 산전 진료 및 산후 건강관리를 이유로 정규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출석을 대체하여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음.
- 둘째,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평가 시 설치 여부와 설치 개소수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적극적 조치가 요구됨. 또한 원격학교에 20일 이상 출석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은 오히려 수업 공백을 유발하여 미혼모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이므로 개선하여야 함.
- 셋째, 학생 청소년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교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함과 동시에 임신, 출산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기능을 마련하여야 함.

- 넷째, 학업중단숙려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화하여야 함. 임신, 출산은 학업 수행에 있어 성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숙려 기간 중 심리 및 진로상담, 외부와의 자원 연계, 학업중단 이후 학업 지속 방법 안내 시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다섯째,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연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현행 제도는 일부 학원의 상업적 접근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전체 한부모로 확대하고 시설 입소자의 경우 종사자의 관리 하에 멘토링, 튜터링 등 개별적 학습지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시기와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 여섯째, 여성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성평등교육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일선 학교의 학생 임신, 출산과 관련한 예방적 접근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기대 효과

-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함
- 청소년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함.

# 통계·기초 분야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이경상	9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	9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V · 이종원·황진구·서정아	108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협동) · 오해섭	115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협동) · 윤철경·임지연	119



# 미래 환경변화 전망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과제 I

##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65-2(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0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26년 후인 2040년까지의 우리사회의 미래모습을 미리 전망해 봄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13년~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첫째, 1차년도인 올해 2013년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트렌드를 추출하여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함. 둘째, 2차년도인 내년 2014년에는 1차년도 연구결과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함.

### ❖ 주요결과

#### 1) 메가트렌드의 추출

- 이 연구에서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은 다음과 같음.
-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 2) 미시환경트렌드의 추출 : 가족환경

- 이 연구에서 추출한 7가지 가족환경 트렌드들은 다음과 같음.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 3) 미시환경트렌드의 추출 : 또래환경

- 이 연구에서 추출한 3가지 또래환경 트렌드들은 다음과 같음.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 4) 미시환경트렌드의 추출 : 학교환경

- 이 연구에서 추출한 3가지 학교환경 트렌드들은 다음과 같음.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 5) 미시환경트렌드의 추출 : 매체환경

- 이 연구에서 추출한 4가지 매체환경 트렌드들은 다음과 같음.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 6) 미시환경트렌드의 추출 : 진로환경

- 이 연구에서 추출한 3가지 진로환경 트렌드들은 다음과 같음.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 정책적 함의

- 이 연구는 2013년~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될 연구로, 올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이 연구과제이며, 내년 2차년도 연구에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게끔 계획되어 있음. 따라서 연구계획상 올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가 없어 이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 몇 가지만 제시하였음.
- 첫째, 이 연구는 단기 연구가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환경트렌드를 추출한 장기 전망적 연구이므로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이 연구는 메가트렌드와 미시환경트렌드를 모두 함께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할 때 거시, 미시 환경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5가지 미시영역으로 나눠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정책 전망 제시에 있어 청소년 영향요인을 미시환경별로 나눠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음.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 연구 요약

❖ 책임연구원 : 김영지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BN : 978-89-7816-781-9(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13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조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되고 있음.
- 2013년도부터는 기존의 4개 아동·청소년 인권영역을 통합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에 따라 지표를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의 130개 지표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지표결과를 생산함.

### ❖ 주요결과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등 2개 하위영역의 9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의 법적 근거와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운영인력과 예산은 부족함.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열악하며, 아동·청소년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움. 인권감수성과 인권적 인식 수준은 약 70~90% 내외로 높은 편이었으나 일부 응답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정당화할 우려가 다소 있었고,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단체 참가 등 실천적 행동의사는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생활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 정도는 80~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에 대해서는 67.6%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함.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아는 경우는 13.1%에 불과함. 아동·청소년은 학업성적과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장애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7%, 87.9%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3개년 추이를 살펴볼 때,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은 줄어들고 이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이름과 국적 및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차별·고민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 7개 하위영역의 27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의견존중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학교에서의 참여수준은 40~50%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음.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고 10명 중 2~3명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모임 가입 등의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음. 51.6%의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5.7%)'이었음. 60%에 가까운 종교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용모검사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지품검사는 중학생이 2011년에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지난 1년간 10명 중 3명은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에 의해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차별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음.

##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입양,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의 5개 하위영역의 17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가정 어린이집이 5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34.0%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5.2%에 불과하였음. 즉, 민간독점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갖고 있으며, 공공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청소년의 5.1%는 가출경험이 있고, 가출청소년의 93.7%는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기관인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입양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국내 입양을 추진하고,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국외입양 조치되도록 함으로써 국외 입양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2003년 2,921건에서 2011년 6,05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2003년 19개소에서 2011년 44개소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에 비해 방임의 빈도가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이 방임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1년부터 실시된 시설평가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 평가지표의 사전 개발과 질적 평가의 도입, 시설 간 무리한 경쟁 방지 등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 4)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약물남용 방지 대책,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7개 하위영역의 37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 15-19세 여성 청소년의 출산율은 1,000명당 1.8명이고, 2011년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3.0명으로 2012년 3.2명 대비 5.1% 감소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10-19세, 20-29세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은 모두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들의 36.9%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5.5%이고, 특히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1.3%에 불과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았으며, 운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수면시간, 비만율, 청소년 유병률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으로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률이 낮았으나 1-2회의 단순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에서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 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5)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는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3개 하위영역의 25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취학률, 진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발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학업중단율, 학교부적응, 사교육 경험률,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 등의 지표에 따른 조사결과에서는 교육열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교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은 더욱 심각함.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로 나타나 한국의 인권교육 실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음. 2011년 현재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청소년수련시설도 1992년 이전에 150여개에서 2011년에 738개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청소년들의 인식과 이용 현황은 다르게 나타남. 지난 1년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은 28.3%에 불과하고 62.3%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여가·문화시설에 대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은 48.8%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음. 휴일의 주요 여가활동은 친구와 놀기(48.2%), TV 시청(46.6%), 게임(43.4%), 집에서 휴식(38.8%)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고, 문화·예술행사 관람(9.1%), 독서(8.6%), 여행(5.1%) 등은 낮게 나타남(중복응답).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2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동아리활동의 경우에는 70.9%가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는 60.1%가 받고 있었는데, 학업성적이 높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 특별보호조치

-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난민아동, 소년사범의 운영, 자유가 박탈된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의 5개 영역에 각 3개 지표로 구성, 총 15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난민 아동·청소년은 2013년 6월 현재 난민 신청자가 207명이고, 이 중 난민지위 인정자가 52명으로, 난민신청자 중 1/4 정도가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있음. 난민신청자는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매해 30~40명에 달하고 있음.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 아동은 2012년 현재 중국 동북 3성내 약 2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내에 입국한 탈북 아동·청소년은 2013년 2월 현재 29세 미만이 24,695명이며, 2004년 이후 매년 300명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소년범죄자 비율은 2011년에 전체범죄자의 4.4%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음. 범죄 유형별로는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흉악범, 성폭력범 등 강력범은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음.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리는 소년범죄자 90% 이상을 형사사건보다는 비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음. 최근 소년원에 단기 및 장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1개월 미만 수용된 소년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011년 현재 114명으로 2007년 657명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2011년 현재 청소년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체 남자근로자 평균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음. 2012년 청소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19세 이하가 5,942원, 20~29세가 10,070원으로, 2011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30세 이상 성인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3년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3%로, 2011년(13.7%)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 처우를 받은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보장(27.2%),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011년 기준으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006명으로 성매매 단속 시행 여부에 따라 증감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 검거자에 대한 구속률은 2005년(15.2%) 이후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까지 낮아지고 있음.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3.8%로 나타나, 다른 교급에 비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제안 1

###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기구 기능 활성화

#### ❖ 제안 내용

- 첫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조정 기능 강화
- 둘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한 운영모델 개발
-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 임명

#### ❖ 기대 효과

- 실질적이고 전문성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활성화

## 정책제안 2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 ❖ 제안 내용

-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연구
- 둘째,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시범 운영 및 정책관계자 교육
- 셋째,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관련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

####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이 모든 영역의 정부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아동·청소년 인지적 거버넌스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청소년 주류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정책제안 3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 제안 내용

- 첫째, 학생자치활동 관련 학교규칙 내용 및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절차 시행 여부 모니터링

실시

- 둘째,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자치활동 혁신사례 발굴·확산 및 모든 학교에 학생자치예산 지원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정책제안 4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 제안 내용

- 첫째,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 및 권한 강화
- 둘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모니터링
- 셋째,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 기대 효과

- 청소년 삶과 생활 전반에서의 아동권리협약 제12조(참여권) 이행

#### 정책제안 5

아동·청소년 인권 홍보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제안 내용

- 첫째,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화, UCC, 게임 등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인권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 둘째, 인권주제 사진전, 박람회, 연극, 축제 등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의 인권지식·의식·감수성 신장을 통한 인권실천 역량 강화

## 정책제안 6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확대 및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장기적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둘째, 보육행정체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 기대 효과

-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및 공공성 확보

## 정책제안 7

입양 아동·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를 위한 교육·홍보

### ❖ 제안 내용

- 첫째, 각 학교의 학부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 대상 입양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실시
- 둘째, 학부모 및 공공기관·기업체 직원 대상 입양교육 실시
- 셋째, 공개입양 가족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 실시

### ❖ 기대 효과

- 입양에 대한 국민 의식 전환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 정책제안 8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학대피해아동 가족지원제도 실시

### ❖ 제안 내용

- 첫째, 취약계층 가정방문서비스 활성화, 고위험 가정 집중적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둘째, 학대행위자 대상 치료 및 교육 강제화 및 학대피해아동 가족지원 제도 실시
- 셋째,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지원

❖ 기대 효과

-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피해아동의 일상생활 복귀 지원

## 정책제안 9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및 청소년또래상담 활성화

❖ 제안 내용

- 첫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 자살관련 위기사례를 논의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지원, 위기사례관리, 관련 실무자 교육 담당
- 둘째, 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친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 셋째,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강화

❖ 기대 효과

- 효과적인 청소년자살 예방 대책 마련

## 정책제안 10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및 활성화

❖ 제안 내용

- 첫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례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유형별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 둘째, 위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치 확대
- 셋째, 학교폭력, 우울 및 자살생각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별된 아동·청소년을 집중사례로 지정하여 추적 관찰하면서 사례관리 실시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

**정책제안 11**

아동·청소년 사회보장 서비스의 부처간 중복 조정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제안 내용

- 첫째,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교육부(초등 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 사업), 여성가족부(방과후아카데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의 대상과 내용 검토를 통해 중복지원을 피하고 집중지원 연령과 대상 조정
-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네트 워크 활성화

❖ 기대 효과

- 사회보장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및 효과 극대화

**정책제안 12**

부처간 사업 조정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한 방과후 여가 및 문화활동 강화

❖ 제안 내용

- 첫째, 아동·청소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여가문화활동 확대
- 둘째, 청소년의 학교 밖 방과후아카데미를 ‘방과후활동’으로 개칭 및 활동 강화에 주력
- 셋째,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 기대 효과

- 학교와 학교밖 영역 모두에서 청소년 여가문화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전인적 성장 도모

### 정책제안 13

청소년디딤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확대 설치

#### ❖ 제안 내용

- 첫째,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및 재활시설인 청소년디딤센터의 전국적 확대
- 둘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서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중앙 허브화 및 전국적 확대 설치

#### ❖ 기대 효과

-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하여 한국 사회 적응 유도

### 정책제안 14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 ❖ 제안 내용

- 첫째, 대학 입학시험의 부담이 적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이수 시간의 확대
- 둘째,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및 학교평가 지표로 인권교육 강화 지표 신설
- 셋째, 인권교육 내용의 질적 개선

#### ❖ 기대 효과

- 인권교육의 양적 및 질적인 강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 정책제안 15

해외체류 탈북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

#### ❖ 제안 내용

- 첫째,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 정책인프라 강화
- 둘째, 탈북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성·운영

❖ 기대 효과

- 탈북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

**정책제안 16**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및 인권침해적인 처우 개선

❖ 제안 내용

- 첫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독립 및 소년원의 기능별 분리
- 둘째, 소년원 시설 및 생활관의 소규모화
- 셋째, 부족인력 확보 방안 마련
- 넷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

❖ 기대 효과

- 보호시설에서 보호소년의 인권을 침해요소 해소를 통한 처우 개선

**정책제안 17**

성폭력피해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가이드라인 설정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제안 내용

-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가이드라인 설정
- 둘째,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매뉴얼 개발보급

❖ 기대 효과

-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Ⅳ

## 연구 요약

❖ 책임연구원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BN : 979-11-5654-002-1(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14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한국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7개년(2010~2016)에 걸친 종단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함.
- 조사 데이터 공개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 주요결과

#### 1) 데이터 구축·공개

- 2012년 제3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표본은 초1 패널 2,200명, 초4 패널 2,219명, 중1 패널 2,259명으로, 원표본 유지율은 각각 93.9%, 93.3%, 96.1%임.
- 제1~3차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작업을 거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최종 데이터를 공개하였음.

#### 2) 데이터 활용

- 제1~3차년도 조사결과를 활용한 제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2013. 11. 14)를 개최하여, 총 11개 주제에 걸쳐 4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아동·청소년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 활용 학술논문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우수작(3편)을 선정·시상하였음.

3) 데이터분석1: 청소년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학업성적은 비행에 대하여 부적인 인과적 효과를 갖고 있음. 즉, 비행 때문에 학업성적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학업성적으로 인하여 비행이 유발됨.
- 비행과 비행친구는 양방향적인 인과관계에 있음. 즉,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을 유발하는 한편, 비행의 경험은 다시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킴.
- 학업성적은 비행친구에 대하여 부적인 인과적 효과를 갖고 있음. 즉,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학업성적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학업성적으로 인하여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증가함.
- 성적-비행, 비행-비행친구, 비행친구-성적의 관계는 세 변인을 모두 투입한 통합모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즉, 학업성적은 비행과 비행친구 모두에 대하여 부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그 반대방향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 낮은 학업성적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비행친구 접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음.

4) 데이터분석2: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이에 생활만족도는 증가추세를 나타냄.
-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양친부모가족 여부,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인 것으로 나타남. 즉, 양친부모 가족이 비양친부모 가족보다,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애정이 높을수록, 방임이 낮을수록, 학대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
-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함수를 확인한 결과,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있어서 개별 초기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는 양친부모 가족 여부,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 최종학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 가정 유무, 형제자매 유무, 전학유무,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3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가족구조와 가족기

능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친부모 가족 여부, 성별은 정적인 효과를, 감독, 애정, 방임은 부적인 효과를 나타냄. 단, 이 결과는 생활만족도의 초기값과 강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데이터분석3: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의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봉사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은 중학교 2학년에 감소했다가 3학년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특히 대부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 규모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남.
-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 동안 총 참여시간의 1년 평균시간도 참여율과 유사하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봉사활동은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자원봉사활동 의무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은 총 2.41개, 중학교 2학년의 경우는 1.61개, 중학교 3학년은 1.53개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높게 나타남.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년간 평균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중학교 학년이 높아질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보다 남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소득규모는 낮을수록 참여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됨. 반면에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고, 남자보다 여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참여 만족도가 상, 하, 중 집단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참여율, 참여시간)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목표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중학교 3학년 시기 친구와 의사소통 능력은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의 수가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총 참여 시간도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유사한 맥락에서 중학교 3학년 시기 친구간 신뢰 정도의 경우도, 중학교 2학년까지 체험활동 참여 영역의 수가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참여 시간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가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인식도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총 참여 시간이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참여 만족도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공동체 의식이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 정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턴 2학년까지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참여율, 참여시간)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절의 사회적 관계의 발달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정책제안 1

### 성적의 낙인효과 예방 및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제언

#### ❖ 제언 내용

- 첫째,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이동수업 운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력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영·수 과목의 수준별 교육을 권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영·수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제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학업성적에 따른 분리교육은 낮은 학업성적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인과적 연쇄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즉, 낮은 학업성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열반 편성을 통한 집단구분은 학업실패자로서의 주관적 낙인을 강화하게 됨. 그 결과 자신을 학습부진아로 규정하는 규범적 질서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과 접촉하고 비행을 통해 학교가 주지 못하는 보상을 얻으려 할 수 있음. 수준별 이동수업의 긍정적 효과(학력 향상)가 의문시되는 한편, 비행이나 비행친구 접촉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그 지속적인 운영은 재고되어야 할 것임.

- 둘째, 학업성적에 대한 보안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학업성적은 청소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인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성적 비공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학업성적 보안 규정의 위반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서는

본인 동의 없는 학업성적의 공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차원의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셋째, 교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에서 건강한 교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친구와의 경쟁관계가 일상화되고 있는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매우 낮은 실정인데, 이것은 상당수의 학교가 동아리활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활동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학교의 동아리활동은 학업성적으로 고민하고 교실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학과수업 위주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지역 단위 학교-청소년시설의 연계·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지역 단위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청소년시설은 수련활동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와 더불어 나이와 성별, 계층, 거주지역 등을 달리 하는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이용은 학교의 좁은 틀을 벗어나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를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동질성에 기반한 학교에서의 교우관계가 경쟁관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소년시설에서의 이질적인 집단과의 교류는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여러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과공부와 과외활동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이 청소년시설 이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내 청소년시설의 공간과 인력을 활용하여 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 동아리활동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기대 효과

- 성적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낮은 학업성적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예방할 수 있음.

학교에서 건강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예방할 수 있음.

## 정책제안 2

###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언

#### ❖ 제안 내용

- 첫째, 가족구조 강화를 위해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함은 물론 기존 프로그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구조 강화를 위한 예방적, 사후대처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부모교육, 양육태도 컨설팅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가족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셋째,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스포츠프로그램, 건강진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체계 개정 및 활동 공간 확보, 홍보 확대를 실시해야 함.
- 넷째, 초기 청소년기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만족도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바, 여자 청소년의 발달 특성, 욕구에 맞는 맞춤형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 기대 효과

-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청소년 행복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정책제안 3

###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제언

####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함.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은 미래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이나 진로정체감 등 자아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나 참여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단 참여한 이후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짐. 따라서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 체험활동 참여 마일리지 제도, 체험활동의 우수한 결과 사례에 대한 포상 강화 등)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진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체험활동 참여 마일리지의 전환 또는 기부 등)를 개발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격차에 대한 인식 및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가족의 소득규모별 체험활동 참여율이나 시간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가정 경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경비 보조, 관련 시설 설치나 이용시 소외지역 우선배정 강화 등)이 필요함.
- 셋째, ‘청소년’이라는 고객 중심의 체험활동 기획 및 전문화를 추진해야 함. 분석결과 중학생 중에서도 학년별로 참여 희망 영역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참여시간이나 참여율 등이 점차 일부 영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특정 영역의 체험활동 참여율이나 희망 정도가 낮다고 그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향후에는 청소년의 교급이나 학년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요구에 적합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해야 함.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청소년 수련활동시설의 경우 증가추세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의 중장기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충원을 강화해야 함.

#### ❖ 기대 효과

- 청소년체험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의 확산
-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강화
- 청소년체험활동 참여 여건 조성을 통한 참여 증진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성장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Ⅲ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836-6(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15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개발을 위하여 법·제도 준비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중앙 및 지역 단위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 주요결과

#### 1)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

- 민주시민역량 하위영역 대부분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시민역량 수준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부분의 민주시민역량 하위영역에서 그 수준이 증가하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 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법률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등 특정 영역의 시민역량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의 교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과 민주시민역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교내활동 참여경험과 민주시민역량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를 제외한 모든 민주시민역량의 하위 영역에서 교내활동 참여경험 정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과 아시아인 정체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민주시민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 외국의 아동·청소년 시민역량 지원체계 및 운영사례 분석: 유럽사례 중심

- 주요 연구 대상으로 2009년 IEA(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국제교육협회, 이하 IEA) 주관으로 수행된 국제시민교육비교연구(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2009 ICCS)에 참가한 유럽의 국가 중 영국과 시민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지원체계를 분석하였음.
- 유럽의 아동청소년 시민역량 지원체계에 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시민역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으로 ①시민역량 지원체계로서의 시민교육 제도화, ②시민역량 측정도구 개발, ③시민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연대망 구축, ④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제언하였음.

## 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아동·청소년이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청소년활동과 시민역량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음.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시설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체험과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이 함양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적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방안으로 청소년특화시설(가칭,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을 설치 운영함. 중앙단위에서의 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며, 시·도의 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수련관 내의 민주시민역량팀’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 다문화시대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다문화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출발하여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다문화 관점과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과 적용 원리에 관한 논리적 고찰 과정을 통해 “SMART CITIZEN”이라는 시민역량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내용 구성 등을 제시하였음.
-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시민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교과과정으로 안착되도록 할 수 있고, 학교와 청소년단체 활동의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기본법의 용어정의 등을 비롯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참여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자원봉사관계법의 검토와 개정이 필요할 것임.

##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 첫째, 아동청소년의 대한 문제중심적 시각에서 강점중심으로 사회적 관점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해야 함.
- 둘째, 민주시민역량 함양의 시의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이 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 셋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학교교육과 관련된 기본법을 재정비하고, 국가청소년계획의 지향목표와 가치를 명료화해야 함. 특히 현 교육과정에서 사회봉사활동, 교과과정 등을 통한 학교 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활동 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넷째,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부처별 협조체제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시급하므로,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원센터」를 각 부처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혹은 학생 및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관련 행정부서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음.
- 다섯째, 민주시민역량 지원을 위한 전담 추진체제 운영의 필요성 차원에서 민주시민 역량 함양 및 교육활동 전담기구로 중앙단위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센터’와 지역단위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안)’ 설립을 제안함. 이 기구는 현재 민주시민 교육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전문단체에 지정 위탁하여 설치 운영하되, 기관 내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여섯째,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역량 함양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로서 관련 학자 및 지도자를 포함하여 전문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전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인력풀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함.
- 일곱째, 다양한 활동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며, 지도자 자신의 시민성역량 개발과 아동·청소년의 시민성 교육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우선되어야 함.
- 여덟째, 다문화 및 글로벌 시민역량을 함양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다문화사회 한국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민의식은 다문화 관점과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됨.
- 아홉째,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과정의 체계화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9-11-5654-004-5(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3-R18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삶과 경험 실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살피고,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 파악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화 및 유형별 분포,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부적응 관련요인을 탐색하고자 함.
-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과 이행경로 파악을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패널조사 1차년도인 2013년도 연구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패널 구축, 조사도구 개발, 분석모형 탐색,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간 집단비교를 통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임.

### ❖ 주요결과

#### 1) 학업중단 현황

- 2012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 대비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중 사회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총 278,260명으로 추산됨. 교육통계에 따른 학업중단율은 초, 중, 고에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지역별로는 수도권일수록 높았음.

-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일수록, 수도권일수록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주요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부적응이며 2006년 이후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증가해 옴.

##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연구 1차년도 조사결과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474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90명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며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된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교이며, 학령별로 볼 때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 학업중단 경험이 많았음. 학업중단사유는 개인적 형편이나 대안교육 선호보다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공부하기 싫다는 학교요인이 과반수이상으로 많았음.
-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복귀 경험율은 16.1%로 이중 약 40%의 청소년은 6개월 이내에 학교로 복귀하지만 대부분 이전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귀하였음.
- 학업중단 시 주요 상담대상은 부모님이며, 그 다음은 친구와 선후배였음. 학생의 학업중단 결정 사실을 담당교사가 모르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응답이 20%를 넘어, 학업중단 시 교사의 상담자 역할은 취약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청소년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학교의 정보제공 역할도 매우 취약하였음.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함.
-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진로상담이었음(48.3%).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학생 청소년과의 비교)

-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특성은 학생 청소년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게임중독 정도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보다 높았음.
- 환경적 특성을 보면 일반 학업중단자가 학생보다 친한 친구 수가 많고, 학습 부적응 수준이 높으며, 학교규정 위반 경험이 많았음. 특히, 월 1회 이상의 무단결석이나 수업 불참은 학생과 구별되는 규정 위반사항임.

##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 학업중단 이후 7개월 이상 지속한 생활경험으로 검정고시 공부(24.3%)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음(21.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학업중단 후 가출

등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0%, 보호관찰 경험자 8.6%, 보호시설 혹은 소년분류심사원 생활 경험자는 2~3% 수준이었음.

- 사회적 관계를 보면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가 없거나, 5명 이하인 경우가 75%이상으로 학업중단 후 새로운 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학원과 상담기관이 10명 중 1.5명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학업중단 후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진로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며, 청소년은 진로정보를 찾기 위해 주로 부모님 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였음. 이들의 향후 진로계획은 검정고시, 대학진학, 복학 등 학업을 지속하려는 유형이 65.1%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 관련 계획과 진로 미결정은 각각 17% 내외 수준임.
-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을 보면 학업 혹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60%,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이 20%로 나타남. 여가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청소년은 81.2%로 개인적인 공부나 운동 등의 긍정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많았음.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생활에 만족하거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등 상당수가 학업중단을 후회하지 않았음. 이와 동시에 지인에게 학업중단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학업중단으로 문제아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청소년도 절반 정도로 나타나 주변인의 시선에 민감한 양가감정을 보임.
- 학업중단 후 경험을 토대로 경로를 구분하면 학업형(42%), 무업형(23%), 직업형(17.9%), 비행형(8.9%), 혼합형(8.2%)인 것으로 나타남. 양부모 가정에 소속된 청소년은 학업형,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에서는 비행형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학업형,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직업형 비율이 높았음. 또한 학업성적을 중위권 이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형, 하위권으로 인식할수록 무업형, 비행형 비율이 높았음.
- 주요 생애사건 경험의 유무는 학업중단 후 경로와 관련을 보이고 있음. 부모의 별거, 이혼, 사망으로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에서는 직업형이, 무경험 집단에서는 학업형이 비교적 큰 비율차로 상반되게 높았음. 또한 비행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학업형이 적고 비행형과 직업형이 다소 많으며, 비행 무경험 집단에서의 비행형 청소년은 전무함.

#### 5)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특성 및 중단 이후 삶

-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중단 시기가 다소 빠른 초·중학교이며, 일반 청소년이 주로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는 이유로 학교를 관두는데 비해 보호관찰 청소년은 공부하기 싫거나, 교사가 싫어서 학업을 중단함.
- 이후 복교율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보호관찰 청소년이 비교적 부모의 반대와 교사의 묵인과 무관심 속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일자리 소개인 것으로 나타남.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의 개인·심리적 특성 중 자아탄력성 평점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보다 높았으며, 대부분의 문제행동을 제외한 자살시도 경험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보다 낮음.
-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을 보면 부모의 방임과 학대 경험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많으며, 친한 친구나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 수가 더 적지만 친한 친구들의 비행성향은 상대적으로 높고, 학업중단자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이며, 규정 위반경험이 더 많고, 학교수업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많음.
- 학업중단 후 경험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무위도식, 아르바이트/취업, 복학, 병원 입원 경험이 많은 반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직업기술훈련, 취미/동아리 활동,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경험은 적었음.
- 보호관찰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학업시간은 비교적 적고,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근무시간은 길었음. 여가시간에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과 달리 보호관찰 청소년은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보내는 시간이 길었음.
- 보호관찰 청소년의 주 5일 결식률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크게 높는데 특히 저녁 결식률의 격차가 컸음(일반 16.2%, 보호관찰 68.4%). 또한 주 3회 이상의 인스턴트식품 섭취율도 더 높아 보호관찰 청소년은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에게 더 알리고 싶지 않고,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어서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생활의 만족도 역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의 절반 수준으로 낮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인식도 낮으며, 학교를 안 다니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음.

## 정책제안 1

### 정책수립의 전제

#### ❖ 제안 내용

-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 대책은 공평한 기회의 제공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국가정책으로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해서 우선 ①정책 대상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②학업중단 예방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주체 확립, ③더불어 지방자치단체까지의 전달체계가 마련되고,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특정 부처 및 일부 산하 기관만이 아닌 개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 기대 효과

- 학업중단 예방 및 청소년 지원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정책으로서의 정당성 확보

## 정책제안 2

### 학업중단 예방 대책

#### ❖ 제안 내용

- 첫째,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경보제 도입
- 둘째, 학업중단 숙려제도 개선 및 찾아가는 전문 인력 풀 구축 운영
- 셋째,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보급
- 넷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중단 예방대책 수립
- 다섯째, 취약지역 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 ❖ 기대 효과

- 학업중단 고위험군 청소년과 학교에 대한 조기개입,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학업중단 감소

### 정책제안 3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

##### ❖ 제안 내용

- 첫째, 학업중단 시 학교의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기능 강화
- 둘째,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 학교선택권 제공, 취약지역에 공공 대안교육기관 우선 설치
- 셋째, 학업중단 시점에 따른 학업 혹은 취업 위주의 차별적 지원과 특별한 목표의식 없이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출 및 비행 청소년 등 특수집단을 위한 교육과 보호, 자립지원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위기청소년지원센터), 특정 목표 없이 방황하는 무업형 청소년의 진로 설정을 돕는 거점 문화 공간 설치, 직업형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 넷째, 학업중단 이후 대인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진로와 경험, 활동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과 온오프라인의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등의 활성화

##### ❖ 기대 효과

- 학업중단 시 학교의 정보제공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중단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이 긍정적 경로로 이행하도록 유도
-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을 확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업중단 후 학업형, 니트형(무업형), 직업형, 취업형 경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로 사회 적응 제고
- 긍정적 청소년 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고립 방지 효과

### 정책제안 4

#### 학업중단대책의 전달체계

##### ❖ 제안 내용

- 첫째, 학업중단대책의 전달체계로 지역교육청 내 전담부서 설치(교육청)

-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교급별 학업중단대책 수립 촉진, 전국 학업중단 정책지도 작성 및 평가(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 셋째, 청소년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정확한 조사·기록 지침을 마련 및 시행(교육부)
- 넷째, 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 지원에 대한 학교 평가지표 설정 및 적용(교육부)
-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대 효과

- 학업중단대책 관련부처가 책임과 역할을 명료화하여 전달체계의 실효성 증대
- 학교와 지역의 학업중단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현장의 정책참여 확대
-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계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지원 강화



# 부 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5년간 발간물 목록	1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162



## 2013년 간행물

###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헌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한영근·허효주·이영화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 / 황진구·허효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박정배·오해섭 (자체번호 13-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직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운 (자체번호 13-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 수시과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한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서정아·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김형주·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황진구·김지연·이혜연·김광혁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이유진·한상철·추승연·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룸홈) 평가 / 김지연·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이창호·최금해·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황진구·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황진구·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클럽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김지연·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배상률·강영배·김정주·김혁진·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김경준·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오해섭·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트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 2012년 간행물

###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황진구·김정주·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황여정·민경석·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김지경·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이광호·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성윤숙·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박병식·김진호·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김희진·강영배·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김승경·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박영균·유성렬·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김영지·정익중·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김영지·정익중·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손경원·신태수·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박균열·홍승훈·윤영돈·유숙희·전종희
- 12-R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강지명·조유오·윤옥경
- 12-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서정아·배상률·성은모·김지영·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조홍식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이명수·윤명주·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최보영·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김준홍·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 (자체번호 12-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이상림·김은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 수시과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김지연·최수미·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중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김희진·김준홍·김정희·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와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규

##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의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또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리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중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더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 학 슬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외 청소년 보호 효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 2011년 간행물

###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 수탁과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고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 · 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가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5호 : 해외 청소년시설 평가사례의 정책적 시사점(12월)
- NYPI YOUTH REPORT 26호 : G20 이후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12월)
- NYPI YOUTH REPORT 27호 :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복지지원방안(12월)
- NYPI YOUTH REPORT 28호 : 청소년 온라인게임중독 실태와 대응방안(12월)

## 2010년 간행물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 청소년 건강상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 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 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윤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혜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이상훈·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이승현·권수진·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유영준·이명희·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최수정·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장근영·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김민성·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조아미·정경은·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김성경·남미애·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박제일·이은경·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권해수

## 수탁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윤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Ⅱ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Ⅲ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Ⅱ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Ⅰ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 2009년 간행물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희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김진호·임성택·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중·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홍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욱·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수탁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2014년 3월 현재)

부 서		성 명	직급(직위)	전화(사무실)	이메일 주소
기획 조정 본부	기획조정본부	최창욱	선임연구위원(본부장)	2188-8807	ccwook@nypi.re.kr
	연구기획·대외 협력팀	김영지	연구위원(팀장)	2188-8846	yjkim@nypi.re.kr
		배상률	부연구위원	2188-8837	drbai@nypi.re.kr
		정은주	부연구위원	2188-8863	eunjujung@nypi.re.kr
활동·역량 연구실		김형주	연구위원(실장)	2188-8843	andrea@nypi.re.kr
		맹영임	선임연구위원	2188-8814	yjmaeng@nypi.re.kr
		이혜연	선임연구위원	2188-8834	hylee@nypi.re.kr
		조혜영	선임연구위원	2188-8813	jhy@@nypi.re.kr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2188-8845	mindhill@nypi.re.kr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2188-8825	lks1428@nypi.re.kr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2188-8841	ohs@nypi.re.kr
		김현철	연구위원	2188-8836	heram@nypi.re.kr
		임희진	연구위원	2188-8886	hjljm@nypi.re.kr
		장근영	연구위원	2188-8870	jjanga@nypi.re.kr
		임지연	연구위원	2188-8820	lly522@nypi.re.kr
		김지경	부연구위원	2188-8875	jkkim@nypi.re.kr
		(배상률)	부연구위원	2188-8837	drbai@nypi.re.kr
		김옥태	부연구위원	2188-8891	ocktopia@nypi.re.kr
	보호·복지 연구실		김지연	연구위원(실장)	2188-8868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2188-8832	jun@nypi.re.kr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2188-8835	eugene@nypi.re.kr
		박영균	선임연구위원	2188-8824	ykpark@nypi.re.kr
		안선영	연구위원	2188-8806	ahn182@nypi.re.kr
		이창호	연구위원	2188-8801	ifsc334@nypi.re.kr
		성윤숙	연구위원	2188-8823	first1004@nypi.re.kr
		최인재	연구위원	2188-8876	jae713@nypi.re.kr
		김희진	부연구위원	2188-8830	heui529@nypi.re.kr
		김승경	부연구위원	2188-8893	skkim0822@nypi.re.kr
		황여정	부연구위원	2188-8882	hyj@nypi.re.kr
통계·기초 연구실		이종원	선임연구위원(실장)	2188-8812	yiwon@nypi.re.kr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2188-8804	chyoon@nypi.re.kr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2188-8805	hwangjku@nypi.re.kr
		김기현	연구위원	2188-8880	kihuns@nypi.re.kr
		모상현	연구위원	2188-8803	saarmo@nypi.re.kr
		백혜정	연구위원	2188-8818	hbaek@nypi.re.kr
		양계민	연구위원	2188-8831	yangkm@nypi.re.kr
		서정아	연구위원	2188-8828	jaseo@nypi.re.kr
		성은모	부연구위원	2188-8883	emsung@nypi.re.kr
		(정은주)	부연구위원	2188-8863	eunjujung@nypi.re.kr

## 2013 고유과제 정책제안보고서

인 쇠 2014년 3월 3일

발 행 2014년 3월 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52